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879
clarapark@ownnewengland.com
Clar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903-3010

ISSN 1554-6942

트럼프 행정명령, 오바마케어 폐지 시작

소기업들의 연합보험, 단기보험 규제 완화
일반 건보 구입했던 중산층 한인들 반색
노인, 병자, 저소득 계층 건강보험 비용 급상승

▶▶ 관련 기사 <내년 오바마케어 건보요금 최대25% 인상> 6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오바마케어의 일부 강제조항을 완화하는 행정명령에 10월 12일 서명했다. 트럼프 행정명령은 그동안 오바마케어 혜택을 거지 받지 못한 중산층과 중소기업들에게 싸고 간소한 보험을 제공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오바마케어를 좌초시키는 교두보 역할 하게 될 전망이다.

이번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일부 소규모 사업체들은 몇몇 업체가 함께 묶어 비교적 저렴한 대규모 그룹 건강보험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연합건강보험플랜 (association health plans)을 허용하는 것과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고 대신 커버리지가 간소화된 단기 보험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를 이룬다. 이 두가지 모두 오바

마케어에서는 허락되지 않았다. 오바마 케어 하에서 대형 그룹 건강보험플랜은 일반적으로 소규모 그룹 건강보험이나 개인 또는 가족 건강보험에 비해 느슨한 규제를 받았다. 대형그룹 보험은 응급서비스, 임신 출산, 정신건강, 약물 남용치료 등의 핵심보험혜택을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하지만 소규모그룹이나 개인 보험 구입자들은 핵심보험혜택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강제됐다. 지난 2011년 오바마가 지명한 한 건보관료는 오바마케어의 강제조항을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해 연합건강보험으로 오바마케어를 대체하는 것에 반대했다. 이에 따라 오바마케어는 10-100규모의 사업장은 대형 사업자의 건보플랜을 구입할 수 없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오바마케어의 일부 강제조항을 완화하는 행정명령에 10월 12일 서명했다

대형그룹 건강보험도 오바마케어 하에서는 최소한의 필수 커버리지 요건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26세이하 자녀를 부모의 건강보험 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과 메모그램 및 콜로노스코피 등의 예방 서비스에 코페이먼트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트럼프 행정명령은 또한 오바마케어의 요건

을 갖추지 못한 단기건강보험 플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

오바마행정부는 일부 대형보험사들이 단기 보험플랜을 남용해서 건강한 가입자들을 오바마케어에서 빼내려 한다고 생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수많은 주에서 건강보험료가 오르고 있으므로 미 국민들은 포괄적 ▶▶6면으로 계속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이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law@lookjs.com

보스톤출발 **한국행항공권 \$870~**부터

미서부관광 (로스앤젤레스 포함)	고국관광 (로스앤젤레스 포함)
호놀룰루/샌프란시스코 4박5일 \$465~	서남권 3박4일 (LA, 샌프란, 오클라호마) \$609~
미서부3대개방 (4박5일) \$470~	중동권 3박4일 (다마스쿠스, 베이루트, 텔아비브) \$609~
미동부관광 (뉴욕 포함)	선국일주 8박9일 (시애틀, 로키산, 게슈)
워싱턴 / 나이아가라 리뉴욕시내 4박5일 \$680~	\$1,388~
미동부&캐나다 4박5일 \$800~	

IACE TRAVEL 부대표: 1.617.424.8956 / 1.866.619.4223

내가 보고 싶은 한국방송 · 영화를 원하는 시간에 고화질로 즐기세요

T-BO PLAY 보스톤코리아 MA, RI, NH 지역 공식 딜러

마음대로 골라본다
\$14.99

KBS, MBC, SBS, tvN, OCN, Olive

주택 | 콘도 | 커머셜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ileen Park
(아일린 박)
REALTOR®

Tel: 617.935.3241
WWW.BOSTONPARKREALTY.COM
카카오톡: Eileen0311
Email: EileenBostonRE@gmail.com
1274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Premier Realty Group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주정부에 한국인이 있음을 알리고 싶었다”

매사추세츠 한국의 날 추진한 이경해 회장 인터뷰 한국의 날 10월 26일 주정부 청사 그레이트홀에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40년 전 보스톤칼리지에 한국인이라곤 저 하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수많은 한국유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한인 커뮤니티가 부쩍 자라는 것을 목격하고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주정부에 들어가면 한국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11일 밤 이경해 시민협회 회장은 전화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40년 전에는 학교에서 외로웠는데 지금은 주류 정치사회에서 외롭다는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매사추세츠 주청사에서 한국인을 찾아보기란 정말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재무부 차관인 사라강이 유일한 주정부 고위직입니다. 주 의회에 아시안계가 5명이지만 대부분이 중국계, 캄보디아계입니다. <매사추세츠 한국의 날>을 추진한 이유는 여기 한국인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한국인이 자체적으로 주정부 청사 안에서 행사를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경해 회장은 “한국인도 보여주고 한국 음식 그리고 한국 문화를 같이 나누고 싶다” 는 것입니다.

이경해 시민협회장은 아시안어메리칸위원회 (Asian American Commission) 활동을 하면서 비교적 주정부에 자주 출입해왔습니다. 또한 주정치인들과 자연스럽게 교류를 갖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행사를 추진하는데 회장이 정치인들에게 초대편지를 보내는 일에서부터 음식 준비 등까지 직접 진행해야 했습니다. 젊은 인력이 부족한 현재 시민협회의 현주소입니다. 이런 고생이 외로움보다는 낫다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다만 지금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신문기사를 보고 반응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사람들을 보여주기 위해 <한국의 날> 행사를 벌



이경해 뉴잉글랜드 시민협회 회장

이는데 한국사람들이 오지 않으면 어찌나’ 하는 불안한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내년에도 한국의 날 행사는 계속되느냐는 질문에 <한번 해보고...지금은 모르겠습니다>로 말을 아꼈습니다. 정말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내년 한국의 날을 다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인터뷰 내용입니다.

-한국의 날은 어떻게 추진하게 됐나요?

아시안 어메리칸 커미션에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매달 모임이 있는데 주

청사를 방문합니다. 드보라 골드버그 재무부 장관 건물 등을 지나면서 정치인들에게 한인사회를 알리면서 하는 것을 생각해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날> 행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저희들은 주청사에서 한국의 날을 열어 주정계 인사들을 초청해서 한국 음식과 한국문화를 보여주며 한인 사회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한국의 날을 추진하는데 도움을 준 주 정치인들이 있었나요?

다행히도 매사추세츠 주 내 5명의 아시안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중 태키첸 의원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태키첸 의원은 주청사 그레이트홀의 비싼 임대료를 저렴하게 하는 등 여러 가지로 주선해 주었습니다. (<한국의 날> 행사에 대해서는 올해 1월 아시안 부동산협회 모임에서 태키첸 의원으로부터 먼저 전해들었습니다)

-한국의 날을 공포하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한국의 날 선언문을 발표하고 이를 전달하는 사람은 아직 분명하게 전해지지 않았다. 다

만 홍콩의 날 등을 고려하면 아시안 중에는 주정부 최고위 인사인 남 팸 경제개발부 차관이 전달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른 아시안 국가도 이와 같은 행사를 진행하는지요?

그렇습니다. 7월 12일은 홍콩의 날 행사를 개최했는데 이 행사에는 2-3년만에 한번씩 합니다. 저의 행사가 10월 26일인데 10월 25일에는 중국의 날 행사를 합니다.

-이번 추진하는데 얼마나 걸렸는지요?

처음 한국의 날을 거론한 것은 작년 총회 때입니다. 이 행사 계획을 발표했을 때 이사들이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구체적인 추진은 7월, 8월부터 시민협회 이사님들과 텔레 컨퍼런스를 통해서 진행했습니다. 영사관에 계획서를 제출하고 정치인들을 초대하고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매년 계속 하실 계획이신가요?

올해 한번 해보고 결정할 계획입니다. 행사를 진행하는 >>3면으로 계속는게 실질적으로 너무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당일 행사 음식물 주문에

<진료 과목>
 *일반 치과 *잇몸 질환 치료
 *신경 치료 *보철 전문
 *보복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강원도민총연 총회 및 회장이취임식 보스톤서

강원도민 총연합회 회장에 안병학, 보스톤강원도민회 회장에 박천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북미주 강원도민회 총연합회(이하 강원총연)가 보스톤에서 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갖는다. 강원총연은 10월 21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12시까지 보스톤 북쪽 로렌스 소재 빌딩에서 총회를 열어 안병학 씨를 강원도 총연 회장으로 추대한다. 이와 함께 보스톤 강원도민회 신임회장에는 박천우 서울설령탕 대표가 취임한다.



안병학 강원도민 총연합회 회장



박천우 보스톤강원도민회 회장

강원총연은 지난 5월 20일 뉴욕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안병학씨를 8대 회장으로 추대했다. 그동안 강원총연은 후보 등록을 받고 선거를 통해 회장을 선출해 왔으나 이번에는 후보 등록 없이 안 회장을 추대했다.

강원총연은 지난 2003년에 설립되어 미국 내 14개 지역 도민회를 대표하고 있다. 그동안 강원 총연은 강원도와 협력 강원도 농수산물을 미주 지역에 공급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특히 LA지역에서는 연 1백만불의 판매고를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창단 멤버들이 점차 고령화 됨에 따라 세대 교체의 문제에 당면하게 됐다.

안병학 회장은 회원들이 만장

일치 추대한 이유는 “80대의 강원총연 초대 선배들이 80대라면 이제 50, 60대로 흘러가는 교두보 역할을 해달라는 의미” 에서라고 밝혔다.

안회장은 “초기에는 300여 명이 모일 정도였지만 지금은 그 수가 절반 이하로 줄었다. 저의 임무는 이 같은 과거처럼 도민회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뉴욕 쪽에 젊은층들이 많이 유입되어 있으므로 이를 네트워크 형성 및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시키겠다” 고 향후 비전을 밝혔다.

보스톤 총회에는 평창올림픽이 약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열리며 미국 전역에서 약 30여명의 강원총연관계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따라서 올림픽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보스톤 강원도민회장에 취임하는 박천우 회장은 “그동안 개인적 이유로 우리 강원도민회에 작은 보탬도 못되었기에 이번 기회에 한번 봉사하라는 선배님들의 뜻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여 맡은 기간동안 열심히 노력하겠다. 앞으로 많은 조언과 질타를 부탁 드린다” 고 서신을 통해 밝혔다.

일시 : 2017년 10월21일
PM 6시-12시

장소 : 155 Parker st, Lawrence,
ma.01843

bostonkorean@hotmail.com



여선교회 임원들의 찬양 모습

여선교회 연합 선교 찬양의 밤 행사 가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 연회 한인 여선교회 연합회는 10월 8일 앤도버 소재 북부보스톤한인감리교회에서 아시아 전도부인 사역을 위한 연합선교 찬양의 밤을 가졌다.

연합선교 찬양의 밤에는 북부보스톤교회, 보스톤 감리교회, 성요한교회, UMW, 무지개교회, 비전교회, 그린랜드교회, 커네티컷 중앙교회, 다문화 선교교회 총 9개팀이 참여했다. 또한 보스톤 한미노인회 난타팀의 난타공연, 목회자로 구성된 찬양팀도 참여했다.

비전교회 권사인 손영희 연합회 회장은 “찬양제를 통해 미 전국 한인 여선교회를 돕고, 아시아 여성 전도사역 지경을 블라디보스톡까지 넓혀 지금도 비참하게 살고 있는 고려인 2,3세에게 복음 선교사역을 전하게” 됐다고 밝혔다.

찬양의 밤에 앞선 예배순서는 성요한 교회 조상연 목사의 설교인도와 한상신 그린랜드감리교회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bostonkorean@hotmail.com

▶▶2면에 이어서

서부터 음식물이 주청사로 들어가는 경로까지 미리 답사해야 합니다. 물과 음료, 컵, 장식 등 하나부터 열까지 회장이 직접 챙겨야 하니 너무 힘듭니다. 젊은 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도 힘이 나는 게 있습니다. (행사 날이) 주중인데 한국분들이 오시기 힘들니까 많이들 오실 수 있는가 걱정했는데 한복을 입고 참가하겠다는 분부터 상당수가 반응해 주셔서 그게 힘이 났습니다. 노인회장님도 회원분들과 참여해주시겠다고 말씀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씀이 있으신지요?

40년 전에 보스톤칼리지에 저 혼자 한국인이었습니다. 지금은 많은 학생들이 있으며 한국 커뮤니티가 자라는 것을 보아 왔습니다. 그런데 주정부에 들어가면 한국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제 목적은메인 스트림에 합류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냥 이뤄지지 않습니다. 들어가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이를 수 없습니다. 투표용지는 중국어, 베트남어로 번역됩니다. 한국인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editor@bostonkorea.com



맞춤식 교육 Mathematics • Verbal • Testing Skill

SAT Plus

SATI 및 SATII 준비 전문학원

TEL: 781-398-1881

2 Winter Street Suite 104, Waltham, MA 024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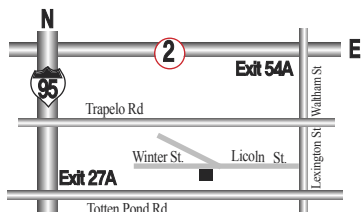
SAT Plus Fall Schedule 2017

Saturday Class Start September 9, 2017

Class	Time
PSAT/SAT I Prep 9/9/17 open	9:00 AM - 11:00 AM 11th Grade
PSAT Prep 9/9/17 - 3/3/18	1:00 PM - 3:00 PM 9th/10th Grade
SAT I Prep 9/9/17 - 11/25/17 (as needed)	3:30 PM - 5:30 PM 12th Grade
SAT II Prep 9/9/17 - 11/25/17	6:00 PM - 8:00 PM Subject Tests 10th/11th/12th Grade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 I 및 SAT II 개인교습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서울대 뉴잉글랜드 동창회는 지난 9월 16일 뉴튼 어번데일 파크에서 가을야유회를 가졌다

서울대 동창회 야유회 성료

10월 28일 블루힐 등산모임 예정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서울대 뉴잉글랜드 동창회는 지난 9월 16일 온화한 날씨 속에 뉴튼 어번데일 파크에서 가을야유회를 가졌다.

이날 롱아일랜드에 거주하는 고일석 동문 부부를 비롯 이의인 동문 부부, 정태영/이영인 동문 부부는 맛있는 영양잡곡밥을, 박영철/정선주 동문 부부는 집에서 재배한 싱싱한 깻잎을 각각 준비 해왔다.

배지선 동문은 테이블을 준비해와서 등록을 받는데 도움을 주었고 김제성 동문은 그릴을 담당해 주어 맛있는 불고기를 즉석에서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이상운 동문은 재치있는 사회로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오랜만에 만난 동문들은 자기소개와 아울러 여

름 동안 가졌던 여행 이야기, 평소 즐겼던 책 이야기, 영화 이야기들을 소개하기도 하고 본인 사업소개도 하는 등 서로 회포를 풀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특히 처음으로 동창회에 참석한 몇몇 새로운 동문들이 있어서 한층 고무된 시간이었다.

한편, 박영철 회장은 “뉴잉글랜드의 맛있는 가을산을 동문 및 가족들과 함께 즐기기 위하여 10월 28일 토요일 블루힐을 등산한다.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만나 뵙겠다” 고 가을등산 모임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였다.

10월 28일 동문회는 호튼스 폰드(Houghton's Pond) 주차장, 비지터센터 게시판 앞에서 9시 집결해서 약 2시간 30분 가량의 가벼운 산행을 나간다. 점심과 물 그리고 등산화, 장갑, 모자, 백팩, 하이킹 폴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617-710-1948, 781-674-2498, snuaane@gmail.com로 할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고대 교우회 모임 성료

김명근 신임회장 선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고려대학교 보스톤교우회는 2017-2018년 첫 모임을 지난 10월 7일 토요일 찰스강과 보스톤 다운타운이 내려다보이는 MIT의 East-gate 29층 펜타 하우스에서 성황리에 마쳤다.

모임에 참석한 교우들은 모처럼 만난 교우들과 반가운 인사를 나누고 새로 보스톤에 온 교우들을 환영하며 즐거운 시간을 나눴다.

이태호 교우회장은 개회사에서 바쁜 일상에서 많이 참석한 교우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한가위 명절을 맞아 고국의 가족과 함께 못하는 아쉬움을 고대 교우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고 전했다.

제12대 회장이었고 현재 대의 협력을 맡은 한문수 전 교우회장은 지난 1년간의 교우회 행사를 소개하고 보스톤 한인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후원한 단체들을 소개했으며 계속 많은 교우의 협조와 참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서 지난 4년간 성공적으로 교우회장직을 마친 이태호 회장을 대신하여 그동안 부회장을 맡고 있던 김명근 교우가 새로운 교우회장으로 선임되었다. 김명근 신임회장은 인사말에서 선배들이 잘 쌓아놓은 전통 속에서 더욱 발전하고 유대감 있는 교



고려대학교 보스톤교우회는 준비해온 음식을 나누고 다 함께 웃놀이 시간을 가지며 고대 교우들의 정을 나누었다

우회를 만들고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영상 고문은 지난 4년간 교우회 발전을 위해 수고한 이태호 교우에게 감사의 선물을 전했으며 각 교우가 준비해온 음식을 나누고 다 함께 웃놀이 시간을 가지며 고대 교우들의 정을 나누었다.

다음 모임은 2017년 1월 신년회로 친목을 다질 예정이다. 고대 교우회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김명근 (617-501-2587, myoung@g-mail.com), 전인탁 (857-998-3318, ingome22@gmail.com).

bostonkorean@hotmail.com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617.871.1482

캠브리지 덴탈 어넥스 Cambridge Dental Annex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전화주문 서비스

로 주문후 다음날 6시에 받으세요.
\$100 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정관장 정품은 정관장만 취급하는
"브랜드스토어"에서 구입해야 안전합니다.

갱년기 여성건강
[원활한 신체 생리 조절]

면역력 증진
[환경호르몬 장애 예방]

항산화 작용
[노화억제]

피로 개선
[기력회복]
[정력개선]

기억력 개선
[주의력 개선]

혈액순환 개선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당뇨 합병증 예방]

홍삼 6대기능
[식약처 인정]

**가을맞이
특별 프로모션**
10월 15일 까지

행사 1

FREE

홍삼정 120g 2개 구입시
홍삼정 50g 무료증정

240g 과 가격과 용량은 같지만
120g 두개여도 적용됩니다.

행사 2

홍삼분, 홍진용, 화매락 구입시
홍삼 정차 마일드 (50팩 / \$35) 무료증정

FREE

전화주문 서비스

로 주문후 다음날 6시에 받으세요.
\$100 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781-238-0303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903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연례 모금 만찬

10월 22일 웰즐리 컬리지 클럽에서 열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한미예술협회가 한 해의 활동을 돌아보며 후원자들과 함께하는 연례 모금 만찬이 열린다. 10월 22일 일요일 오후 4시 30분부터 웰즐리 컬리지 클럽 (727 Washington St., Wellesley, MA)에서 열리는 이번 모금만찬은 2012년 창립 이래 여섯 번째다.

한미예술협회의 김병국 회장은 “보스톤 지역의 한인 문화단체로 이제 조금 눈을 뜨기 시작한 단계다. 앞으로도 11월에 열리는 파커 퀼렛과 피아니스트 김정자 교수의 연주, 내년에 계획된 보스톤 미술관의 설날 행사, 한국 가곡 연주회, 콩코드 도서관에서의 한국 문화 행사, 파이프 오르간 연주회 등 다양한 행사들이 계속될 예정이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김 회장은 또 “이 지역 한인 예술가들의 활동 기회를 넓혀 주고 한국 문화를 알리며, 미국 문화단체 및 다른 아시아권 문화단체와 협력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모금 만찬의 꽃은 미술품 경매 (silent auction)다. 한인 작가들의 작품 외에도 협회 활동을 후원하는 미국



작년에 개최되었던 한미예술협회 모금 만찬 모습

인 작가들의 기증 작품 또한 경매에 등장한다. 만찬 후 베네수엘라 출신의 전통 악기 연주자인 카를로스 카파초와 재즈 피아니스트 노한나 씨의 흥겨운 연주가 준비되어 있다.

모금 만찬 참가비는 1인당 \$100이며 한국식 애피타이저가 포함된 양식, 저녁식사와 음악 연주, 경품 추첨이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분들은 www.kcsboston.org에서 등록할 수 있다. (문의 : 781-367-5993)

예술협회는 지난 5년 동안 해마다 한국의 전통 예술인들을 초청하여 수준 높은 국악 공연을 무대에 올려 많은 호응을 얻었으며, 연례 미술 전시회와 봄/가을의 클래식 음악 콘서트를 통해 지역 예술인들에게 활동 기회를 제공해

왔다. 또한 2014년부터는 보스톤 미술관 (Museum of Fine Arts)과 협력하여 음력 설날 행사를 진행하면서 수 천 명의 관람객들에게 한복과 세배 풍습을 소개해 왔다.

최근에는 올해 탄생 100주년을 맞은 윤동주 시인의 시를 주제로 한 미술 전시회와 같은 해에 태어난 윤이상 작곡가의 곡을 중심으로 하는 음악회 등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한국 및 한인 관련 문화활동을 지원한 바 있다. 또한 문학 방면에서도 매사추세츠 주립 로웰 대학교 교수인 산드라 임 (Sandra Lim) 시인의 시 낭독회를 후원하는 등 서서히 활동을 넓혀가고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나누면서 풍성해진" 애머스트 한국학교 추석행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애머스트 한국학교는 추석을 맞이하여 10월 6일 학생들과 교사 그리고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나누면서 풍성해지는' 뜻을 새기는 추석 행사를 즐겼다.

이날 학생들은 각 반에서 추석의 유래와 전통에 대해 배운 후 강당에 함께 모여 학부모회에서 준비한 각색의 천연재료 떡반죽으로 개성있는 모양의 송편을 빚었다. 송편이 찌지는 동안 학교 운동장에서 직접 만든 알록달록 제기를 차는 등 여러

가지 민속놀이를 즐겼다. 다양한 한국 전통과 문화를 서부 매사추세츠에 전하기 위해 2014년에 설립된 애머스트 한국학교는 비영리 단체 (501c3)로 미국세정에 등록되어 있으며, 대한민국 재외동포 재단에 등록되어 있는 학교다.

등록 및 자원봉사 그리고 후원에 관심 있는 사람은 koreanainamherst@gmail.com으로 연락할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애머스트 한국학교는 10월 6일 학생들과 교사 그리고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추석 행사를 즐겼다



Frank Y. Shin, D.M.D
현 **Tufts** 치과대학 부교수



신영목치과

- 치아 이식 수술 [Implants]
- 금속 없는 Bruxir Crown
- 미용 치과 치료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 드립니다)
- 응급 환자 당일 치료
- 토요일도 진료함
- 각종 보험 지정 병원

www.drfrankshin.com

617.265.5606

1428 Dorchester Ave. Boston, MA 02122



가주 순두부

한식&일식

2013, 2014년 보스톤 매거진 선정 한식 1위 "가주 순두부"
얼스톤점과 캠브리지점 두곳에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오전10시~ 밤10시까지 입니다.



얼스톤 지점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 8540

캠브리지 지점
57 JFK st. Cambridge, MA 02138,
(617) 864- 6868

단체 예약과 문의 가능

내년 오바마케어 건보요금 최대26% 인상

수혜자 코페이 등 비용보조 CSR지급 지연 작전
가장 큰 폭 인상은 빈곤선 400%이상 소득 중산층
행정명령 정당화하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인 듯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오바마케어 해당자 즉 매사추세츠 헬스 커넥터를 통해 건강보험을 구입하는 사람들의 일부는 이번 11월 1일부터 가입하기 시작하는 내년 건강보험의 비용이 최대 26%까지 인상될 전망이다. 트럼프 정부가 행정명령 등을 거론하며 보험사에 지급하는 정부보조금 지급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연방정부의 보조금 지급이 불투명해 지자 MA헬스커넥터와 보험부는 당장 다음달 초부터 시작되는 2018년 건강보험 공개 가입을 앞두고 두가지 건보료 플랜을 준비해놓고 있었다.

커넥터는 최소한 1주내에는 두가지 보험료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만약 연방정부가 비용분담감소금(cost sharing reduction CSR)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가정해 높은 보험료를 선택하는 경우 일부 가입자들에게는 오바마케어 밖의 의료보험 플랜을 구입토록 권장할 계획이다.

커넥터 이사회는 매년 다음해 보험료를 승인하기 위해 열었던 9월 회의를 올리는 취소했다. 동시에 주정부는 보험회사들에게 현재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보험료를 두 가지 버전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비용분담감소금(CSR)은 연방빈곤선 250%이하 가계소득, 또는 4인가족 기준 \$60,625 이하의 가계 소득의 가족 또는 개인들의 코페이와 디덕터블을 낮추기 위해 지급되는 연방 보조금이다. 매사추세츠에서는 지난해 총 244,400명의 가입자가 CSR의 혜택을 받았다.

비용분담감소(CSR)보조금의 운명은

현재 법원 분쟁중이다. 이 소송은 하원 공화당이 오바마행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케어를 좌초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CSR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었다.

CSR보조금 중단을 가정한 보험료 체계에서는 실버 플랜의 보험료가 높아진다. 연방 보건부장관 매리로 서더스는 “이로 인해 약 8만명의 보험료가 인상될 것”이라 강조했다. 특히 저보험료 고 디덕터블 및 코페이로 설계된 커넥터의 실버 보험료는 평균 26.1% 높아진다. 이번 보조금 중단이 아니라 할지라도 실버보험료는 약 10.5% 인상될 예정이었다.

커넥터 루이 쿠티에레즈 대표는 1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공개등록기간의 데드라인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떤 보험료율을 채택할 것인지가 10일 아침까지는 결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높은 보험료율이 내년 공식 보험료로 채택된다면 보조금을 받지 않는 연방 빈곤선 400% 이상, 즉 4인가족 \$98,400 이상 가계소득을 올리는 가족은 가장 심각한 보험료 인상타격을 받게 된다. 커넥터는 이런 가족들에게 통지를 보내 커넥터 외의 좀더 저렴한 건강보험을 구입할 것을 조언할 계획이다.

쿠티에레즈 대표는 보험료가 큰폭으로 인상된 보험가입자들에게는 “일단 보험 거래소 밖의 건강보험을 직접 선택하도록 할 것이며 이런 보험사의 연락처를 제공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하고 “두번째는 커넥터 내에서 실버가 아닌 브론즈 등의 플랜을 구입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커넥터는 11월 표결을 통해 4개의 보험



사에서 제공하는 14개의 덴탈플랜과 8개사에 제공하는 52개의 그룹 및 비그룹 플랜을 승인할 계획이다.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의 실버 플랜은 평균 7-20.3%의 보험료가 인상되며 골드 플랜은 최대 12.6%, 브론즈의 경우 10.2% 인상된다. 매사추세츠 보험부는 구체적인 보험료율을 11일 오후 일반에게 공개했다.

베이커는 지난 9월부터 계속해서 CSR 보조금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 그는 의회에 보낸 편지에서 1억 4천6백만달러(\$146million) 비용보조의 불확실성은 수십만명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지사는 10월달 워싱턴을 방문해 의회에서 CSR보조금을 최소 2019년까지 2년간의 시간을 보험사들에게 주어 충분한 확실성을 갖고 보험료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매사추세츠는 연방정부 변화의 충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옵션을 갖고 있다. 베이커주지사는 상원 발언 다음날인 9월 8일 1332섹션 웨이버를 제출했다. 이는 CSR 대신에 보험료 안정화 펀드를 설립하는 웨이버를 제출한 것이다.

CSR로 문제를 겪고 있는 곳은 단지 보스톤 뿐만 아니다. 캘리포니아, 워싱턴 등도 두가지 보험료 건강보험을 준비해놓고 있는 상황이다.

hsb@bostonkorea.com

트럼프 행정명령, 오바마케어 폐지 시작

▶▶1면에 이어서

이지 않지만 저렴한 대안 건강보험을 구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따라 단기보험플랜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나이티드헬스그룹(UnitedHealth Group) 등과 전국적인 대형 보험사는 이미 단기 보험플랜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런 업체는 더 많은 단기 플랜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많은 개인들이 이 같은 단기 건강보험이 저렴하기 때문에 선호한다. 이 건강보험은 굳이 비싼 의료혜택이 필요없는 건강한 개인들에게 제한적인 보험혜택만을 제공한다. 이 단기 건강보험은 오바마케어 패널티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오바마케어 및 일반 보험료가 매년 두자릿수 이상 인상되면서 일부 중산층들은 패널티를 감수하면서 이 저렴한 단기 플랜을 구입키도 하였고 일부는 아예 보험을 구입하지 않고 패널티를 감수했었다.

이에 따라 포괄적 커버리지의 건강 보험료는 대폭 인상 되어 더욱더 구입하기 어렵게 될 전망이다. 저렴하고 커버리지가 간소화된 보험 구입이 손쉬워지면서 오바마케어에는 없고, 병든 사람들 만 남게 돼 결국 오바마케어의 보험료를 대폭 인상시킬 전망이다. 오바마케어는 비용부담으로 인해 점차 붕괴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따라 노동부는 시행세칙을 마련해야 하고 또한 일반 국민들의 여론 청취 기간 등을 거쳐야 한다. 또한 보

험사들은 새로운 연합건강보험 플랜을 만들어야 하므로 상당한 기간을 거쳐야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다음달 공개등록을 시작하는 2018년 보험은 물론 2019년 보험 때도 준비가 될지 미지수다.

오바마케어는 저소득층과 기 존질환이 있는 사람 그리고 노년층에게 커다란 혜택을 제공해온 반면 연방 빈곤선 400%(1인 \$48,240, 4인 \$98,400)가 넘는 중산층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지 못했다. 독신이며 한해 단지 약 5만불 정도의 소득을 올리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비싼 보험에 가입해야 했다.

그동안 오바마케어가 아닌 일반 보험을 구입해왔던 한 중산층 한인 S씨는 트럼프의 건강보험 경량화 저렴화에 환영의 뜻을 보였다. 트럼프의 열렬한 반대자이지만 그동안 오바마케어가 중산층에 대한 혜택에 인색했다는 의견을 밝혔다.

S씨는 “일반적으로 대학을 졸업한 부부의 경우 가계소득은 대부분 10만불을 넘게 된다. 이 경우에는 높은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했으므로 중산층의 원망이 클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역시 일반 보험을 구입해왔던 L씨는 “오바마케어 이후에도 계속 보험료가 올랐다. 과거에는 거의 디덕터블이 없는 보험을 구입했는데 지금은 약 5천불 정도의 디덕터블을 선택하고 있다”고 밝혔다.

hsb@bostonkorea.com

617-739-2888

- 한국, 아시아, 미국내, 유럽, 남미 등
- KE, UA, DL, AA 등 모든 항공사 취급
- 항공권 특별 할인 제공
- 통역, 번역 서비스

유니버스 여행사
대표 최한길

Universe travel services
Tel: 617-739-2888 / www.usboston.net

공인회계사

정진수
CPA / 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용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여(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공인세무사 김창근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보스턴 짜라시 토크 4



이거 실화냐?

보스턴 생활속에 여러가지 사건, 사고 중 기사로 담기에는 어려운 것들을 대담형식으로 풀어 냅니다. 따라서 대개 익명을 쓰며 혹은 실명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는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얘기일 수도 있으니 감안하시고 적절히 판단해 주십시오. 혹 제보하실 독자가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editor@bostonkorea.com 에 제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는 아직 협찬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후원사 협찬을 통해 꼭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자 주)

레스토랑 입소문 가장빨라

기자1= 보스턴의 식당에 대한 입소문은 아주 빠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브라이언 과거 <마카마키>에 자리한 한인 음식점 스프링 샤프에 대한 입소문이 거침없습니다. 고기를 제외한 야채를 부페식으로 무제한 공급한 이 <스프링 샤프>는 저렴한 가격으로 고객을 공략한 것이 성공했습니다. 평일에도 만석이며 주말에는 밖에서 기다릴 정도입니다.

기자2= 평일 점심에 갔는데 친구와 둘이서 25불 가량만 지불하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맛도 좋았구요. 저녁시간에도 갔었는데 그리 비싸지 않았습니다. 야채를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었습니다. 뉴욕쪽에 본사가 있으며 보스턴에 진출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기자1= 샤프샤프 전문 울스톤 S식당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군요. 하지만 입소문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 떡볶이는 당초 서



울 설렁탕이 인수하면서 맛이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가 컸습니다만 방문했던 사람들이 과거와 다르지 않다는 평가를 내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과거 남미계주방장을 그대로 고용한 것이 실수였는데 지금은 과거 주방장을 해고하고 새로운 주방장체제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입소문은 아직도 그 주방장이 남아 있는 것으로 돌고 있습니다.

기자3= 소셜미디어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아내는 최근들어 F북은 거의 하지 않고 인스타그램만 합니다. 지난주 메인의 포틀랜드를 방문하면서 인근 도시 새코(Saco)의 한 음식점을 들렀습니다. 아내가 인스타그램으로 검색했는데 아주 평점이 좋아 방문한 것입니다. <펠러스다이너>란 곳이었는데 생각보다 허름했습니다. 메뉴를 보고 비싼 가격에 놀랐습니다. 그런데 맛을 본 후 가졌던 모든 불만이 사라졌습니다. 특히 튜나멜트는 강추입니다. 제가 맛본 미국식 음식점 중에는 최고였습니다. 인스타그램



램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젊은층에 대해서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은 아 버님 세대

기자1= 그런데 인스타그램을 그렇게 선호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인스타그램은 어떻게 사용하는가요?

기자3= 인스타그램은 글자수가 제한되어 있는 반면 주로 사진을 중심으로 올릴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내가 어디가서 뭐했다 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사진이 아주 많이 올라옵니다. 글자를 읽기 싫어하는 신세대들에게는 아주 적절한 것이지요. 한국의 연예인들을 비롯해 젊은 층에서는 인스타그램이 대세입니다.

기자2= 인스타그램은 자신만의 포트폴리오 느낌이 있습니다. 사진을 많이 올릴 수 있어서 특히 맛집에 대한 내용이 많습니다. 특히 학생들은 인스타그램을 쓰는 것이 두드러지는 경향입니다. 페이스북은 어른들이 주로 사용한다는 인식입니다. 부모님, 교수님, 그리고 친척들도 있으니 마음 편하게 뭘 올리지는 못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은 글 위주라 취향에 맞지 않습니다. 친한 친구끼리 마음놓고 교환할 수 있고 해쉬태그가 아주 편하게 되어있는 인스타그램이 문화적으로 맞는 것입니다. 또 트위터와 스냅챗을 섞어 놓은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특히 스토리

는 하루가 지나면 사라지기 때문에 아무런 사진이라도 올리기도 합니다.

기자4= 구글 이어버드가 화제입니다. 픽셀과 연결해서 40여개국어를 통역해줍니다. 한국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기 피해자들의 정신적 물질적 고통

기자1=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쉽게 정신적인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과거 페리카나 가맹점 사기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K씨의 부인이 심한 우울증으로 운전 못할 정도의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제보입니다. 남편이 60대에 접어든 이들 부부는 가맹점 사기로 인해 지불했던 라이선스비 3만 5천불을 비롯 상점 렌트 및 운영관련 보유하고 있던 10여만불을 소진하고 재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원에서는 민사와 형사소송이 각기 진행중이지만 워낙 법원 절차가 느려 피해자들의 고통은 가중되는 형국입니다. 그럼에도 재판 결과로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일말의 기대와 못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교차하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현재 겨우 생활을 근근히 이어가고 있는데 부부가 정신적으로 아주 피폐해져가고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에 대한 대가가 가혹합니다. 주위의 관심과 위로가 절실히 보입니다.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문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파산보호, 콜렉션 방어, 채무 조정
신용점수 분쟁 및 조정
교통사고 상해, 이민법
법인 사업체 등록, 정관, Bylaws, TIN
부동산/비즈니스 P&S 및 Closing
민/형사 소송

파산보호신청 의뢰인에게 드리는 기본 서비스

프리미엄 크레딧 리포트
크레딧 어슈런스
리포트 모니터링 서비스(1년)

*익스페리언, 트랜스 유니언, 에퀴팩스 및 공공기록, 저당 및 판결결과 조사, 추가로, 현 점수 및 정리이후 예상 신용점수도 함께 제공
*Data Provided by CIN LEGAL Data Services. Additional fee may apply.

장우석 변호사 매사추세츠 및 뉴욕 주 라이선스
CHANG & ASSOCIATES, P.C.
781.712.1706 FAX: 781.712.2066
changlaw781@gmail.com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사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대형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1, J1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ichelleha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125 Cambridge Park Dr. Ste301
Cambridge MA 02140
Woburn: 76 Winn St. 1F Woburn MA 01801



영국 BBC, 한국어 방송 개시

북한 포함 세계에 매일 단파·중파 라디오 송출 “반체제 목소리 아닌 공정하고 공평한 뉴스 보도할 것”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보경 기자 = 공영방송 BBC 월드서비스가 1년 여의 준비 끝에 지난 9월 25일 한국어 서비스를 공식 개시했다. BBC는 한반도 전체를 청취권역으로 한반도 주변 소식과 전세계 주요 뉴스를 한국어로 전하는 ‘BBC 코리아’ 라디오 방송과 온라인 웹사이트(BBC.com/Korean)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BBC는 25일 첫 방송으로 미국에 대한 북한의 자위권을 주장한 북한 리용호 외무상의 기자회견과 한반도 긴장 원인을 제공한 것은 북한이라는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인터뷰 내용, 그리고 한국의 핵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취재 내용 등 한반도의 긴장 고조와 관련된 내용들을 보도했다.

텔레그래프(The Telegraph)에 따르면 이번에 출범한 ‘BBC 코리아’는 주요 청취 대상으로 언론의 자유가 억압된 북한 주민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BBC 월드서비스 측은 북한에 바깥 세상의 소식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알린다는 취지로 설립 계획 때부터 주목을 받아왔다.

그런 만큼 북한 정부는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BBC의 한국어 서비스 개시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38노스(38 North)의 말틴 윌리엄스는 “북한에서 외국라디오를 청취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북한 주민들을 그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며 “북한 정부는 주민들이 정부가 운영하는 라디오만 청취할 수 있도록 제한할 것이다”

”고 말했다.

하지만 BBC 월드서비스 프란체스카 언스워스 국장은 “BBC 코리아는 BBC 월드서비스가 오랜 기간 전 세계에서 쌓아온 전통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공평한 뉴스를 보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BBC 코리아’의 방송시간은 동부 표준시(EST) 기준 단파가 오전 11시 30분부터 세시간 동안, 중파가 오후 12시 30분부터 한 시간 동안 매일 송출된다. 평양 현지시간으로 단파의 경우 0시부터 새벽 3시까지, 중파의 경우 새벽 1시부터 새벽 2시까지이다. 단파 주파수는 5810 kHz, 9940 kHz(2017년 10월 28일까지), 5830 kHz(2017년 10월 29일~2018년 3월 24일)이며, 중파 주파수는 1431 kHz를 사용한다. 또한, 방송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아 다시 들을 수 있다.

이번 BBC의 한국어 서비스는 라디오 외에도 온라인을 통해 시사, 스포츠, 경제, 문화 분야의 기사와 영상, 라디오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BBC 코리아’ 취재진은 서울과 런던, 워싱턴에서 활동하며, BBC 뉴스의 해외 특파원으로서 비스에 기여할 예정이다.

BBC는 1940년 이후 가장 큰 서비스 확대로 한국어 외에도 오로모어, 암하라어, 구자라티어, 이그보어, 마라티어, 피진어, 핀자버어, 세르비아어, 텔루구어, 티그리냐어, 요루바어 등 11개의 언어를 추가했다.

kbk@bostonkorea.com

트럼프, 핵심 지지층 결집 위해 계속되는 반이민 정책

반이민 세력들의 목소리를 의식하는 정치적 제스처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보경 기자 = 트럼프 대통령의 일관된 반이민 정책이 그의 지지층 결집을 위한 고도의 정치 전략이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취임 전부터 반이민 정책을 주장해왔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즉시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불법 이민자 추방 및 합법 이민 축소, 무슬림 입국 제한 등 일련의 반이민 정책을 펼치며 이민자 출신의 소수민족들의 반발을 샀다.

그럼에도 트럼프 정권이 반이민 정책에 집착하는 것은 핵심 지지층의 지지율을 노리고 있다는 모습이라고 뉴욕타임스(NYT)는 지적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DACA (불법체류 청년추방유예 프로그램) 폐지를 선언하면서 미국 내 약 85만 명의 사람들이 추방 위기에 놓여있다. 재미 한국인을 위한 비영리 단체 KAC(Korean American Coalition)에 따르면 이 중 재미 한인 청년은 1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의회에서 향후 6개월 동안 DACA를 대체할 수 있는 법안이 제정되지 않으면 DACA의 자동 폐지로 체류 허가가 연장되지 않으며 더 이상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없어 언제라도 추방 가능한 상태에 놓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DACA로 인해 중앙아메리카 출신 청년들의 불법 이민과 범죄가 급증했다고 주장했지만 AP통신이 미 회계감사원(GAO)의 2015년 보고서를 살펴본 결과는 사실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에서 부모와 동행하지 않은 청소년들의 이민이 급증한 주요 원인은 해당 국가의 범죄와 경제적 기회 부족 때문이며, DACA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트럼프 대통령 정부는 DACA 폐지 논의에 이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난민 입국 상한선을 정하여 반이민 정책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내년 난민 입국 인원을 역대 최저치인 4만5000명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9월 26일 보도했다. 이번 수치는 1980년 이민법이 미국에 입국하는 난민 수를 대통령이 결정하도록 변경된 이후 최저 기록이며 지난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정한 11만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규모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에 범죄율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고, 이에 따라 법무부는 연방정부의 이민 규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피난처 도시에 예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엄포를 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을 비롯해 미국의 정치인과 기업인들, 유엔 사무총장과 유럽연합은 일제히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이 미국의 전통과 가치를 훼손시키고 있다며 비난해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더 강력한 반이민 정책을 펴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앞서 거론한 트럼프 대통령의 새 이민 법안(난민입국상한선 축소)에 대해 “백악관이 주요한 정치적 패배인 ‘오바마케어 폐기법’ 무산을 딛고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을 재결집시키는 (이민)이슈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이러한 트럼프 정권의 반이민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정치적·국제적 정세 상 자신의 지지기반을 더욱더 결집하기 위해 반이민 세력들의 목소리를 의식하는 정치적 제스처라고 볼 수 있다.

kbk@bostonkorea.com

마음대로 골라본다
\$14.99

Plus 상품 방송 3사 \$14.99
Premium 상품 방송 3사 지상파 / 케이블 \$24.99
VIP 상품 방송 3사 / 중편 지상파 / 케이블 Live / 스포츠 \$34.99

티보 실시간 한국방송 서비스 확대
지금 전화하세요! 617-955-9112

총 13개 Live방송중

KTBC / JTBC / JTBC골프 / 채널A(동아방송) / KIDS / 옥야방송 / CBS(기독교방송) / ETN / 버라이어티 / KTV / 우리방송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MICROBLADING & PERMANENT MAKEUP

반영구 메이크업 자연눈썹 아이라인 입술

MA Licensed permanent cosmetics Artist
Jin 978.935.1395
52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shalom DENTISTRY
살롬치과
SHALOM DENTISTRY

일반진료
응급치료

보험: Delta, BCBS, MetLife, Cigna, Aetna, Guardian, Altus Dental

원장: 김진구

영업 시간
화: 오전 8시-오후 5시
수: 오전 8시-오후 6시
목: 오전 8시-오후 5시
금: 오전 8시-오후 12시

978.263.4592 www.shalomdentistry.com
smile@shalomdentistry.com
418 MASSACHUSETTS AVE. ACTON, MA 01720

로터리 점차 라운드어바웃으로 바뀐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에 유난히 많은 로터리가 점차적으로 사라지고 차량의 진행 방향이 정확히 표시되는 라운드어바웃(roundabout[라운드버트])으로 바뀌게 된다.

보스톤글로브는 레딩과 웨이크필드 접경지역에 있는 95번도로 40번 출구 라운드어바웃을 예로 들었다. 이곳은 커다란 로터리가 존재하던 곳이다. 이 로터리는 분명하게 차선이 표시되었고 운전자에게 진행방향을 알려주는 사인을 부착했다. 또한 라운드어바웃의 입구도 진행방향에 따라 선으로 나뉘어 정리되어 있다.

로터리는 많은 운전자들에게 적절한 타임에 끼어드는 것을 하도록 요구하며 때로 초보운전자들에게 커다란 혼동을 주기도 했다. 물론 안에서 진행하는 차에게 우선권을 주는 혼돈의 룰이 있었지만 라운드어바웃은 이에 덧붙여 구체적으로 어느 차선에서 어디로 진행할지 차선을 구분해서 알려주게 된다.

라운드어바웃에 대한 운전자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웨이크필드 지역 신문인 웨이크필드 패치는 사설을 통해 “40번 출구의 라운드어바웃에 대한 나의 생각이다. 이제 우리가 직면해야할 정신나간 교통흐름은 고속도로 작업자들이 한손에는 브러시를 다른 한손에는 위스키를 들고 만든 것이다”라며 격렬하게 반발했다.

매사추세츠 교통부는 라운드어바웃의 설치 이유는 안전 때문이라고

밝혔다. 라운드 어바웃은 증명된 안전장치라는 것이다.

현재 매사추세츠에는 100개가 넘는 로터리가 있으며 이는 미국내 어

로터리와 라운드어바웃의 차이점

로터리

1. 로터리에 차선이 없음
2. 안쪽 차선 우선의 법칙이 있었지만 모두가 각자의 법칙으로 운행
3. 차량이 적을 때 편리, 차를 멈출 필요 없음

라운드어바웃

1. 로터리에 차선이 있음
2. 진입구 차선이 2개에서 3개로 나뉘어 있음. 진행 방향에 따라서 차선에 서게 함
3. 입구에서 차를 서행하고 자신의 진행 방향에 따라 차선을 선택해서 서게 됨

는 주보다 많은 수다. 교통부는 과거 교통량이 적을 때 이 로터리가 유용했지만 지금처럼 교통량이 많은 상태에서는 아니라는 것이다.

교통량이 적을 때는 신호등이 없으니 서행하면서 차를 멈추지 않고 갈 수 있었지만 교통량이 늘어나면서 모두 각자의 로터리 법칙을 가지고 운행을 하다 보니 모두가 잘못된 운전을 하는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라운드어바웃은 일정한 차량 흐름에 대한 원칙을 주어 차량의 충돌을 방지하고자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그동안 로터리는 차량 추돌사고율이 높았다. 다만 치명적인 사고가 아

닌 차량 측면 및 뒷면 추돌이었다. 네바다에서는 라운드어바웃이 인기를 얻었다. 한 조사에 따르면 과거 신호등이 있던 사거리를 라운드어바

웃으로 바꿨을 때 치명적 사고가 90% 줄어들었다. 매사추세츠내의 라운드어바웃 변환은 각 지역의 사고율을 분석해서

서히 도입될 것이라는 게 주정부의 말이다. 그러나 결국에는 모두 라운드어바웃으로 바꿀 계획이다. hsb@bostonkorea.com

95번 도로 40번 출구 라운드어바웃 차량흐름도



매사추세츠의 로터리가 라운드어바웃으로 바뀌게 된다. 현재 15개가 바뀌었다. 웨이크필드에 있는 라운드어바웃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설명한다.

1. 진입구에는 2개의 차선이 있음. 95번 사우스로 연결되는 첫번째 출구에서 나갈 운전자는 우측 차선을 선택해 멈춤 없이 95번 사우스로 향하는 전용 차선에서 그대로 직진하면 된다.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운전자는 좌측 차선에서 서서 왼쪽의 차량 흐름을 본 후 차량이 없는 경우 안쪽 차선으로 가로질러 들어간다.
2. 해버힐 스트리트에서 진입하는 차선도 2개로 오른쪽에서는 첫번째 출구로 직진하고 왼쪽 차선은 두, 셋, 네번째 차선에서 나갈 차량이 서서 차량 흐름에 따라 진입한다.
3. 차선이 1개의 차선으로 좁혀져 차량이 두 개 차선처럼 운행하지 않도록 한다.
4. 라운드어바웃에서 나갈 때 차선은 한 차선으로 병합된다.
5. 로웰 스트리트로 나가는 큰 출구는 두 개 차선을 유지하고 있다.
6. 129번에서 합류하는 차량도 두 개 차선으로 라운드어바웃에 접근한다.
7. 보행자 또는 자전거 접근 도로 설치



로웰지역 유일 한인 치과

진료 과목

일반 치과
크라운
임플란트
잇몸 치료
Invisalign
Sleep Apnea

보험

Delta Dental Premier,
Blue Cross Blue Shield
Indemnity Plan

좋은 치과, 좋은 치아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당신의 환한 미소가
마름답습니다.”



거의 모든 보험 받습니다
매스헬스도 받습니다

978.689.9363
(한국어문의)



DongWan Kim DMD

김동원 치과

465 South Broadway Lawrence MA 01843



가족 물리치료 병원

GB Family Physical Therapy

매사추세츠 최초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교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



조기유학 및 학업지도 대표 기관

BOSEC 보스톤 유학원

www.bosec.com

보스톤유학원은 가장 오래 전통을 가진 유학원으로 많은 학생들을 명문 중/고등 사립 학교와 명문 대학에 입학 시켜온 교육 컨설팅 대표기관입니다. 보스톤 유학원은 학생들이 미국에서의 학업에서 성공하도록 최상의 컨설팅과 수준높은 학업지도를 제공합니다

중 고 대학 입학 컨설팅 (강남 사무소 운영)

1. 조기유학, 초/중/고 /대학 입학, 전학, 인터뷰 가이드 전문
2. 한국에서 갓 전학 온 학생 교육컨설팅
3. 대학 입학 상담, 지원서 작성 (College Consulting) : 하버드 입학담당관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활약
4. 가디언, 홈 스테이, 여름/겨울 캠프
5. 주말 봉사활동, 특활 지원
6.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www.bosec.com

■ 컨설팅 서비스의 특징: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철저히 분석하여 성공적 상급 학교 진학을 보장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서울 사무소: 부모님 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참조)

■합격한 중, 고등 학교: Fay, Choate Rosemary, St. Paul, Milton, Groton, Kent, NMH, Loomis Chaffee, Hotchkiss, Lawrenceville, St. George, Middlesex, Concord, Governor Dummer, Eaglebrook, Cardigan Mountain, Fessenden, Cushing, Brooks, Westover, Dana Hall, Holderness, Kent, Worcester Academy, Eaglebrook, Philips Academy, Pomfret 등.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합격한 대학: Harvard, Yale, Stanford, Cornell, Columbia, NYU, Bowdoin, Dartmouth, Trinity, Emory, U. Mich., U. Penn. Brandeis, Boston College, Bowdoin 등 다수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학업 지도 튜터링

ACT SAT SSAT TOEFL AP 전문

강사진: 전원 Harvard, MIT 등 명문 대 교수진, 박사과정, 대학원생 및 미국인 현직 교사.
튜터링 경험이 풍부한 보스톤 지역 최고의 강사진.

- 대상 학생: Native Speaker, 유학생, 보딩스쿨/데이스쿨 학생
- 한국식 엄격한 지도. 숙제 관리.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지도 함.
- 시험 요령 습득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 SAT, TOEFL, SSAT수강생 전원에게 정선된 필수 단어 목록 제공

Private Tutoring

English, Essay Writing
Math, History, Science
Latin, French, Spanish, Chinese
SAT II, AP, 수학 / 과학 경시

여름 방학 특강 (보스톤)

SAT ACT SSAR ISEE TOEFL 집중반 6월 - 8월
개인 지도 전 과목 집중지도

추수감사절, 겨울방학, 봄방학 (보딩스쿨)

2001년부터 제공되어온 전통있는 프로그램

추수감사절 프로그램: 11/21-11/30

ACT, SAT, SAT II, AP, 학교 수업 과목 개인지도

프로그램 특징:

- 학생별 필요에 따른 개인지도 및 그룹지도
- 최고의 강사진 (하버드 대학 캠퍼스 옆 위치)
- 원하는 경우 호텔에서 재우지 않습니다

보스톤 유학원

미국: 545 Concord Avenue, Suite 214,
Cambridge, MA 02138

한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 아크로텔 2914호
(삼성 타워팰리스 단지 내 02-579-9731)

대표: 원장 공학박사 송영두

Tel 617-491-0041
617-491-0043

* 교사 수시 모집: info@bosec.com 으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홈스테이 가정 수시 모집: 뉴잉글랜드 전역. info@bosec.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사절.

* 사무 직원 모집: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분. humanresource@bosec.com 로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주차는 보스톤유학원 옆의 Fresh Pond Mall 의 Whole Foods Market에 하시면됩니다."

보스톤 공립 도서관 소장 음악 인터넷으로 듣는다

보관 중인 음악 자료 디지털화 작업 진행 인터넷 아카이브 통해 누구나 무료로 접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한 때 유행했던 LP판에 담긴 음악들을 지금은 듣기 힘들다. 그러나 보스톤 공립 도서관이 이런 음악들을 디지털로 변환하여 대중에게 무료로 공개할 예정이다.

보스톤 공립 도서관은 지난 11일, 소장 중인 오디오 자료들을 인터넷 아카이브 (Internet Archive, www.archive.org)로 옮기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소장하고 있는 자료들을 디지털화 하는 작업이 먼저 진행되고, 이를 온라인 상에 업로드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인터넷 아카이브는 비영리 디지털 도서관으로 책, 영화, 음악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보스톤 공립 도서관은 2007년부터 일부 자료들을 인터넷 아카이브를 통해 공개해 오고 있다.

보스톤 공립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오디오 자료는 다양한 형태로 보관 중이었다. 이 중에는 LP판으로 녹음되어 있는 클래식, 팝, 락, 재즈 음악 등 100여 년 전에 미국에서 인기 있던 음악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일단 디지털화 작업이 끝나서 인터넷 아카이브에 업로드 되면, 인터넷 아카이브 회원은 누구나 무료로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스톤 공립 도서관은 성명을 통해 밝혔다.

인터넷 아카이브의 창업자인 브루스터 같은 “보관 중인 자료들을 대중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데 보스톤 공립 도서관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며 “보스톤 공립 도서관은 100여 년 전 녹음된 다양한 음악과 소리들을 보유하고 있다. 100년 전 미국의 소리가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다” 라고 말했다.

보스톤 공립 도서관은 다양한 음악 자료들을 소장하고 있지만, 수십 년 동안 창고에서 분류가 되지 않은 상태로 있었다. 이런 이유로 그 동안 일반 대중들은 보스톤 공립 도서관이 보관 중인 음악 자료들에 접근할 수 없었다.

보스톤 공립 도서관과 인터넷 아카이브의 합동 프로젝트는 다양한 음악을 대중에게 무료로 공개하는 데에만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LP판 시대의 음악들을 보존하고 연구를 가능하게 한다는 데에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보스톤 공립 도서관은 밝혔다.

jsi@bostonkorea.com



카플리 스퀘어에 위치한 보스톤 공립 도서관



십대들 페이스북 다툼이 총기 사고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매사추세츠주에서 13세 소년이 비슷한 또래의 12세 학생을 총으로 쏘아 총의료 경찰에 체포되었다. 체포된 10대 용의자는 페이스북에서 댓글을 주고 받다가 현실에서 총까지 쏘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기 사고는 9일 오후에 톤턴에 위치한 용의자의 집 근처에서 발생했다. 체포된 소년은 다른 10대 학생들 3-5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라이플을 발사했다. 첫 탄환은 위협용으로 하늘을 향해 발사되었지만, 두 번째 탄환은 피해자의 팔을 관통하여 가슴

근처에 박혔다. 총을 맞은 학생은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치료 후 안정을 취하고 있다. 사용된 총기는 용의자의 어머니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는 라이플로 집 안의 금고에 보관되어 있었다.

톤턴 경찰서의 폴 로드리크 부서에 따르면 페이스북에 쓰여 있는 댓글을 보고 위협을 느낀 용의자가 집으로 돌아와 총동적으로 총기를 사용했다. 체포된 용의자는 청소년 보호소에 수감 중이다.

jsi@bostonkorea.com



서울설령탕

한식 세계화의 종갓집이 되겠습니다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 617.505.6771







다가오는 봄, 서울설령탕의 피자, 족발, 보쌈, 수육과 함께 각종 주류를 즐기세요!





서울설령탕 In Allston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617.505.6771
SeoulBeefSoup.com



서울 on Beacon Hill
155 Cambridge St, Boston
617.873.8888
SeoulFoodBoston.com



서울 떡볶이

(구 비빔)



김밥, 라면, 떡볶이가 생각날때!

한국식 정통 분식전문점

한국 분식점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메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김밥, 떡볶이, 돈가스, 치킨, 순대, 쫄면, 비빔밥등 50여가지의 분식전문점 메뉴)








617.787.5656

SEOUL TOPOKKI

166 Harvard Ave. Allston MA.02134

MA주 의회 안전벨트 착용 강화 법안 추진

현행 법으로 안전벨트 단속 한계 공청회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 중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매사추세츠 주 의회에서 안전벨트 착용과 관련한 법안을 더욱 강화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안전벨트 덕분에 목숨을 구했다는 증언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매사추세츠 법안은 운전을 하거나 운전 중인 차량에 탑승했을 경우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티켓이 발부된다.

그러나 매사추세츠 안전벨트 법안이 지니고 있는 약점은 경찰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운전 중인 차량을 멈추고 티켓을 발부할 수 없다는 점이다. 안전벨트 미착용은 이차적인 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안전벨트 미착용만

을 이유로 차량을 세울 수 없다.

만약 다른 교통 법규를 위반해서 경찰이 티켓을 발부할 때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있으면 추가로 티켓을 발부할 수 있는 것이다.

일부 매사추세츠 의원들과 연방 교통 위원회에서는 안전벨트 법안 강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연방 교통위원회의 티벨라 디자르 이사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것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목숨을 구하거나 심각한 부상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하면서도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며 “안전벨트는 목숨을 구하는 기술이다”라고 말했다.

발의된 법안 중에는 안전벨트 미착용을 일차적인 교통 법규 위반으로 규정하

여, 경찰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운전자나 탑승자를 발견할 경우 차량을 세워서 티켓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이런 법안이 인종차별의 위험성을 담고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스쿨버스에서 학생들의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 하는 내용도 논의 중이다. 현행 법안은 개인 차량에서만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스쿨버스 탑승자에 대해서는 안전벨트 착용을 강제하지 않고 있다.

스쿨버스에 안전벨트가 아예 장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2022년까지 모든 스쿨버스에 안전벨트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도 논의 중이다.

매사추세츠 공공 안전 위원회는 공청회를 통해 접수된 의견과 증언을 검토하여, 안전벨트 법안을 어떻게 강화하는 것이 좋을지를 의회에 제안할 예정이다.

jsi@bostonkorea.com



NAFTA 폐기 시 자동차부품 업계 최대 5만명 실직

(로이터=뉴스1) 김정환 기자 =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폐지될 경우 미국 자동차부품 업계에서 대규모 실직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멕시코와 캐나다에 수출할 때 더 높은 관세를 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12일 보스턴컨설팅그룹은 미국 자동차 부품 제조업협회의 후원으로 실시한 연구 결과 보고서에서 실직 규모가 최대 5만명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약 87만명이 자동차 부품 업계에 종사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하의 관세 조항들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관세 조항이 개정될 경우 멕시코와 캐나다는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해질 전망이다. 양국이 전에는 미국보다 더 높은 수입관세를 부과한 바 있어

다시 그 수준으로 돌아가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25%의 트럭 관세를 피하는 것 외에 미국에 있는 제조업체들에 대한 다른 인센티브가 없다면 자동차 생산이 중국 등 저비용 국가로 이동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보고서는 NAFTA 재협상이 NAFTA 회원국의 부품을 늘리는 조건으로 결론이 날 경우에도 최대 2만 4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은 NAFTA 회원국에서 제조한 부품이 종전의 62.5%에서 85%로 늘어야 하며, 50%는 미국산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앤 윌슨 미국 자동차 부품 제조업협회 회장은 "이 같은 원산지 규정은 미국의 부품을 늘리려는 커녕 줄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acenes@news1.kr

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집을 사시거나 파실때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해 일 하겠습니다.

집을 사고 팔때 언제든지 승진(GINA)과 승원(PETER)을 찾아 주세요.
 TEL: 978.866.3248(최승진), 617.780.7839(주승원)
 thepeterginateam@gmail.com



캘리포니아 산불로 와인 맛 바뀔라 발 동동

연기로 향미 떨어지는 '스모크 테인트' 걱정 대형 와이너리는 '전혀 문제없다' 평가도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미국 캘리포니아주 도시들에 번진 대형 산불로 인해 유명 와인 산지이자 관광지인 나파와 소노마 카운티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10일 USA투데이에 따르면 나파·소노마 카운티 와이너리 관계자들은 이번 산불로 와인의 향미가 떨어질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모양새다.

이번 산불로 이들 지역의 와이너리 다수가 전소되거나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화재로 인한 그을음·연기가 포도 향미에 영향을 끼치는 '스모크 테인트'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우려되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화재 이후 평소 나파·소노마 지역에서 생산되던 포

도 품질로 회복하기까지 5~7년이 걸릴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미국 와인의 85%를 생산하는 캘리포니아주 내에서도 나파·소노마 카운티는 고급 와인 산지로 꼽힌다.

올해 이상고온으로 수확 시기가 앞당겨졌긴 하지만 아직 나파밸리의 포도 중 4분의 1이 수확되지 않은 상태다. 야외 컨테이너에서 발효가 진행 중인 포도에도 이번 화재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화재가 계속돼 정확한 피해 집계는 어려운 탓에 주민들의 근심은 깊어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화재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와인 산업은 문제 없을 것이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대형 와이너리는 칠레 등에 와인 농

장을 뒤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와인 유통업체 '서던 글레이저스 와인 앤 스피리츠'의 케빈 릴리 이사는 "화재로 인해 영향을 받은 작은 와이너리가 생산하는 와인은 수천개 정도"라며 "대규모 와이너리의 경우 재정적으로 안정돼 있어서 와인 가격 상승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릴리 이사는 스모크 테인트 현상에 대해서는 "2017년 빈티지 정도만 영향을 받거나 일부는 블렌딩 용으로 팔릴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지난 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나파밸리 인근에서 발생한 불이 인근 도시들에 급속도로 번지면서 동시다발 대형 산불로 확대됐다. 이 불로 2만 5000명 가량이 대피했으며 적어도 15명이 숨지고 180명이 실종됐다.

seunghlee@news1.kr



캘리포니아주 소노마 카운티에 위치한 포도밭 뒤로 화재로 인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러시아 해커들이 자국산 백신 프로그램 카스퍼스키를 이용 미 정보기관을 해킹한 사실이 밝혀졌다

먹이사슬 맨 위엔 이스라엘 NSA 해킹한 리 해킹

이스라엘, 2015년 리 백신 카스퍼스키 컴퓨터망 침투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미국의 정보기관이 러시아 백신 프로그램을 이용한 스파이에 뚫렸다. 그런데 이스라엘 정부가 이 사실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는 전말이 알려졌다.

11일 뉴욕타임스(NYT)는 러시아 해커가 자국산 백신 프로그램 카스퍼스키를 이용해 미 국가정보국(NSA)을 해킹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정보국이 미국 정부에 알렸다고 보도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정부가 러시아 해커들의 스파이 행위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이야기다.

익명의 이스라엘 정보국 관계자는 NYT에 2015년 해커들을 고용해 카스퍼스키 컴퓨터망에 침투, 실시간으로 그들의 활동을 주시했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 NSA에 대한 러시아의 해킹 사실을 알아챈 이스라엘은 최근 미 정부에 이 사실을 알렸다. 미국 정부는 지난 달 정부 기관에 카스퍼스키 프로그

램 사용을 금하도록 지시했다. 러시아 해커들은 카스퍼스키를 이용해 NSA 직원들의 개인용 컴퓨터 등에서 부주의하게 저장된 각종 기밀 문서들을 빼냈다고 NYT는 전했다.

카스퍼스키는 NSA를 포함 전 세계 4억명이 사용하는 백신 프로그램이다.

대부분의 백신 프로그램과 같이 카스퍼스키 프로그램은 바이러스 등 각종 위협을 점검하기 위해 컴퓨터에 저장된 모든 것에 접근이 가능하다. 또 이 프로그램은 악성 소프트웨어 멀웨어 등을 제거하기 전 카스퍼스키 본사에 보고하는데 이 때문에 러시아 스파이 활동에 완벽한 도구가 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NSA 및 백악관은 이번 보도에 대한 관련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주미 이스라엘 대사관과 러시아 대사관도 언론의 접촉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yjw@news1.kr

Prescott & Son Insurance
Insurance Producer Moon Hang Lee
한인 보험 대리인 이문항

“보상 내용과 크기는”
적절하고 안전하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사업체 보험
Workers Comp.
개인 자동차 보험
상업용 자동차 보험
집 보험
건물보험

Tel: 781.325.3406
Office: 781.322.2350
Fax: 781.322.3093
mleeins@gmail.com | mlee@prescottandson.com

업무 시간
월-금: 오전 10시-오후 4시
토, 일요일, 공휴일: Closed

태양자동차
Body & Repair / States Inspection

모든 차량 정비 서비스
유럽, 미국
일본, 한국

STATES INSPECTION
사고가 났습니까?
사고가 난 차를 원상 복구해 드립니다.
인슈어런스 바디워크 합니다.

617.868.2500
617.868.2600
48 NEW ST. CAMBRIDGE, MA 02138
Harvard Sq. 5 min / Lexington 10 min / Newton 20 min
E mail: sunautobody@yahoo.com

형제 떡집

GRAND RE-OPEN
축 재개업

영업 시간
달리버리: 목 - 일요일까지
픽업: 목-일, 새벽부터 오전9시까지
주문: 일주일 내내

STORE: 978.391.4695
CEL: 978.343.6080
FAX: 978.796.5245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트럼프에 무릎꿇은 NFL? 국가편 모두 기립해야

선수들 편이던 구단주조차 "그만하자" 움직임 연맹회의 개최... '기립 의무화' 규정도입 논의할듯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선수들의 '무릎꿇기'를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한다던 미국 프로풋볼(NFL) 구단주들. 그들이 대통령의 끈질긴 압박에 넘어간 것일까.

2주 전만 해도 가족처럼 선수들을 감싸주던 NFL 구단들이 국가(國歌) 연주 때 무릎꿇기를 금지하려는 쪽으로 돌아섰다고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10일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수들의 국민의례 거부를 국기에 대한 모독으로 규정하고 미 전역에 퍼진 다수의 팬들도 이에 불만을 표시하면서다.

NYT는 "더욱 더 많은 구단주들이 이 정치적 문제를 진정 시키려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의 변화는 한때 무릎꿇기 항의를 선수들의 '의견을 표

출할 권리'로 옹호한 로저 구델 NFL 커미셔너가 이끌고 있다. 구델은 이날 구단주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우리는 많은 NFL 팬들처럼 모든 이들이 국가 연주 때 기립해야 한다고 믿는다"라고 강조했다.

구델은 또 선수들이 항의하려는 대상인 사회 부정이나 경찰의 흑인 과잉 진압을 NFL 역시 걱정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가(歌)를 둘러싼 논란은 솔직한 담론이나 진정한 진보로 나아가는 데 걸림돌"이라는 논리로 무릎꿇기 중단에 더 무게를 실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다음 주 구단주 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회의에서 국가 연주 시 기립 규정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수들의 무릎꿇기에 태도

를 바꾼 구단주는 구델 말고도 또 있다. '마이애미 돌핀스'의 스티븐 로스도 지역 매체를 통해 무릎꿇기가 더는 효과적인 시위 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남겼다.

에당초 트럼프 대통령 편에 섰던 구단주들은 선수들에 대한 압박을 더했다. 제리 존스 '댈러스 카우보이스' 구단주는 지난 8일 무릎꿇기로서 "국기를 존중하지 않는" 선수들이 있다면 그를 벤치에 앉히겠다고 엄포했다.

NFL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스는 누구든 "국기를 존중치 않으면, 경기를 뛰지 못한다"고 단언했다.

앞서 전체 32개 NFL 구단 중 절반 가량이 성명을 내고 선수들의 무릎꿇기를 비판한 트럼프 대통령을 역으로 비난한 바 있다.

이처럼 선수들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구단주들조차 태도를 바꾼 데에는 백악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많다.

지난달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NFL이 국가 연주 동안 경기장 안 모든 사람이 기립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트위터나 대규모 연설을 통해 이같이 집요하게 요구했다.

NFL의 현행 규정에 따르면 선수들은 국가가 연주되는 동안 경기장에 나와서 있어야 하지만, 이것이 완전히 강제되는 규정은 아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직접 NFL 경기를 관람하다가 일부 선수가 국민의례를 거부하자 자리를 박차고 나가기도 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부탁한 결과인 것으로 알려졌다.

'돈'이라는 현실적 문제도 작용했다. 구단의 이익을 중요시하는 구단주들로서는 경기 이외 요소가 논란을 일으켜 시청률에 영향을 주거나 광고주들이 난처해하는 상황이 달가울 수 없다.

선수들은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벌써 '그린베이 패커스'에서 타이틀엔드를 맡고 있는 마텔러스 베넷은 트위터를 통해 구델의 태도 변화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선수는 "돈과 부정의(不正義) 사이에 놓이면, 둘 모두를 가지려는 게 어렵긴 하다"라고 빈정댔다.

하지만 NYT는 이번 무릎꿇기 사태가 스스로 해결되는 기미도 보인다고 전했다. 기존에 무릎꿇기를 시도했던 마이애미 돌핀스 선수 3명은 지난 주말 경기에서 국가 연주 때 경기장에 나오지 않는 우회적인 항의 방식을 택했다.

icef08@news1.kr



미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가운데)이 지난 9일 일본 오키나와 인근 해상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와 합동훈련을 하고 있다

핵항모 레이건, 日자위대와 연이은 합동훈련

7일부터 오키나와 및 한반도 주변 해상서 진행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미국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 전단이 일본 해상자위대와 함께 지난 주말부터 한반도 남서쪽 일본 오키나와(沖繩) 인근 해상에서 합동훈련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NHK 등에 따르면 해상자위대는 11일 "미 해군과의 합동훈련이 7일 시작됐다"며 "대만과 필리핀 사이 바시해협에서부터 한반도에 가까운 일본 남서부 섬 주변 해상에서 훈련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주일미군 요코스카(横須賀) 해군기지를 거점으로 하는 '레이건'함은 지난달 11~28일에도 해상자위대 호위함 등과 함께 한반도 남쪽 및 오키나와 인근 해상을 오가며 합동훈련을 했었다.

레이건함은 해상자위대와의 지난달 훈련 뒤 홍콩에 기항했다가 이번 훈련에 다시 합류했다.

해상자위대에선 호위함 '시마카제' 등이 이번 훈련에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 해군 항모의 이 같은 한반도 주변 해상 전개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레이건'함은 자위대와의 이번 훈련 뒤엔 한국 해군과도 별도 훈련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ys4174@news1.kr



프로풋볼(NFL) 선수들이 경기 전 국가 연주 중 무릎을 꿇고 있다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미래를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제대로
준비하자!**

집장만
패밀리 프로텍션
모든걸 한번에!!

가장 중요한 준비하는 것인
주택용자
모기지 리파이낸스 의료보험
생명보험 통상대출
케쉬아웃 리파이낸스
연금보험
모기지 프로텍션
부담 최소화 **사고보험**

모기지 & 종합보험
마이클 리 컨설팅 978.314.8818
125 Cambridgepark Dr. Suite 301, Cambridge, MA 02140
mlee@myinsurancema.com

BULPAN
Grill & Lounge

불판
바베큐&라운지

차가운 가을밤, 친구가 그리웁니다.
친구와 한잔, 불판

**세트메뉴
강추!**



영업 시간
주 7일 오픈. 금,토: 밤 11시까지

소주, 칵테일 및 다양한 주류
가라오케 및 각종 연회시설 완비

BULPAN RESTAURANT
Korean BBQ, Hibachi, Sushi & Chinese
781.863.2800
27 Waltham St. Lexington, MA 02421

HAPPY
해피돌상

고품격 전통상 대어 (백일상, 돌상)
한국보다 더 한국적인 꼼꼼한 전통상차림,
소중한 내 아기에게 한국의 미를 보여주세요!
저렴하고 푸짐하게!



- 품격을 더하는 화접도 현수막
- 다양한 수공예 소품들
- 엄마의 마음으로 만든 기저귀 케이크
- 국내산 용기접시와 찬기, 공기
- 화려하고 우아한 나비춃대
- 풍성한 상차림 세트

문의 617.249.3131 Happydolsang@gmail.com

세탁기 세이프가드 피하기 어렵다, 정부·업계 차산책 모색

뾰족한 대응방안 없어...부품만이라도 적용제외 설득 삼성, LG전자 미국 현지공장 투자 건으로 美 정부 설득

(서울=뉴스1) 장은지, 이현일 기자 =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의 통상압박에 대응해 11일 정부와 긴급회동을 가졌지만, 피해를 최소화할만한 뾰족한 대응방안은 나오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급한대로 업계는 미국 현지에 건설할 예정인 가전공장의 고용창출효과 등을 들어 미국 정부를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각각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와 테네시주에 가전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미국 현지 투자를 하는 기업에는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밝혀온만큼,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미국 투자와 고용창출효과, 한국산 가전제품을 유통하는 미국 현지 유통업체 등의 피해 등을 산출해 월풀의 주장을 반박할 계획이다.

가전업계 관계자는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펴고 있는 미국 정부가 월풀의 주장을 받아들인 ITC 판정에 따라 구제조치를 시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현실"이라며 "구제조치 자체를 아예 피할 수는 없어보이지만 현지 공장 설립 효과 등을 강조하며 가능한 한 우리업계의 피해가 적은 방향으로 미국 정부를 설득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강성전 통상차관보 주재로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업계와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당초 이날 회의는 국장급이 참석하기로 했으나 사안이 중대한만큼, 차관보가 주재하는 회의로 격상됐다. 삼성전자와 LG전

자 측에서는 통상 업무 담당 임원과 실무진들이 참석했다.

강 차관보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제일 중요한 것은 지난 5일 피해 판정에서 적용 제외됐던 한국 생산 세탁기가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적용 제외되도록 유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전략은 당장 실리가 없다. 삼성전자는 미국 수출용 세탁기를 한국에서 만들지 않고 있다. LG전자 역시 미국 수출용 세탁기는 동남아 생산 비중이 80%로 국내 생산은 20% 정도에 불과하다. 정부가 말한 첫번째 전략이 유의미한 결과를 내려면 삼성전자나 LG전자가 동남아 생산물량을 한국으로 이전해야해 시간이 걸리는 데다 인건비 등 원가가 높아지는 문제도 있다.

또 강 차관보는 "두번째로는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프리미엄 세탁기나 부품 등은 적용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겠다"며 "세이프가드 방식에 있어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주장하겠다"고 했다. 미국 측이 부품까지 세이프가드에 포함시키는 것을 막아 앞으로 세워질 미국 현지공장 생산물량의 원가경쟁력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전략이다.

종합하면 미국 정부가 자국 세탁기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구제조치에 나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를 제지할 만한 우리 정부의 뾰족한 대응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삼성과 LG가 가진 '패'는 미국 현지 공장 설립 건 정도다. 월풀이 "미국의

일자리를 지키려면 삼성과 LG를 막아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반박할 수 있는 효과적인 카드라고 업계는 본다. 삼성전자는 지난 6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뉴베리 지역에 투자 규모 약 4300억원(3억8000만달러)·고용규모 950명 수준의 가전 공장을 건립 계획을 발표했다. LG전자도 테네시주에 2810억원(2억5000만달러)를 투자해 세탁기 생산 공장을 짓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상정책에서 '아메리칸 퍼스트(미국 최우선주의)'를 앞세우면서도 '미국 현지투자기업 우대'정책을 같이 펼치고 있다. 업계가 현지 투자를 강조하는 것도 이같은 트럼프의 딜레마를 공격해 설득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와 삼성·LG전자 측은 세이프가드 발동이 결국에는 미국 소비자의 피해로 귀결될 것이라는 점도 적극 호소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ITC 결정 이후 "우리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에 가전 공장을 짓고 소비자들에게 미국산 혁신 세탁기를 공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라며 "구제조치에 따라 미국 소비자들에 끼칠 영향 및 가전 공장 설립에 미칠 부작용에 대해 위원회가 신중히 고려하길 촉구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날 대책회의는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만장일치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수입·판매중인 가정용 세탁기로 인해 자국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판정한 데 따른 대응이다. ITC의 판정으로 공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로 넘어간 상황이다.

ITC는 오는 19일 구제조치(Remedy)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11월21일 구제조치 방법 및 수준을 결정할 뒤 오



는 12월 4일까지 피해판정, 구제조치 권고 등을 담은 보고서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제출한다. 60일 이내로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이 나온다면 세이프가드(긴급 수입 제한 조치)가 발동될 수 있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자국에 피해가 생길 경우 수입국이 관세를 높이거나 수입량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다. 국내 생산 제품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세이프가드 적용에서 제외되지만, 한국의 지역에서 생산해 미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세탁기 대부분은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앞서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지난해 미국의 반덤핑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중국에서 만들어 미국에서 팔아온 세탁기 생산기지를 모두 동남아로 옮긴 바 있다.

삼성과 LG를 겨냥하며 청원을 낸 미국 월풀 측은 중국산 세탁기와 마찬가지로 베트남, 태국 등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입되는 한국 세탁기에 대해 40%대의 높은 관세를 적용하는 것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동남아에서 만들어져 미국으로 수출되는 삼성전자 등 세탁기에 대한 현행관세

는 1% 수준이다.

월풀 측은 한술 더 떠 세탁기 모터 등 핵심 부품을 미국 공장으로부터 조달하는 경우도 세이프가드 범위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미국 공장에서 생산하게 될 세탁기의 원가경쟁력이 크게 떨어진다. 미국 현지 투자를 하면 혜택을 주겠다는 미국 정부의 말을 믿고 투자한 삼성전자와 LG전자, 국내 협력사들 모두 피해를 입게 된다. 한국 등에서 조달하는 각종 세탁기 부품에까지 제한이 걸릴 경우 미국 공장 설립 일정과 생산물량 등은 당초 계획과 상당부분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시장조사 기관 트래클라인에 따르면, 2014년 삼성(10%)과 LG(13%)를 합쳐 23%였던 국내 양대업체 미국 세탁기 시장점유율은 올해 상반기 31%까지 늘어났다. 같은 기간 월풀(관계사 포함)의 점유율은 41%에서 38%로 감소했다. 삼성과 LG가 전자동 세탁기와 드럼 세탁기를 하나로 결합한 세탁기나 세탁 도중 빨래를 추가할 수 있는 혁신제품을 통해 미국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동안 월풀이 기술혁신에 실패한 결과다.

seeit@news1.kr

달리면 충전되는 '트랜스포머 전기자전거' 나온다

(울산=뉴스1) 이상문 기자 = UNIST 정연우 교수 연구팀이 개발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모듈 모빌리티'가 지난달 14일부터 24일까지 독일에서 열린 세계 최대 자동차 전시회인 '프랑크푸르트 국제 모터쇼'에서 공개돼 호평을 받았다.

하이브리드 모듈 모빌리티는 페달을 밟으면 충전되는 4륜 전기자전거다.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유아용과 화물용, 주행용 등 6가지 형태로 변신도 가능하다.

UNIST 디자인-공학 융합전문대학원의 정연우 교수팀은 이번 모터쇼에서 자동차부품전문기업 만도와 손잡고 진행한 '하이브리드 모듈 모빌리티 프로젝트'의 콘셉트를 공개했다. 하이브리드 모듈 모빌리티는 유럽 시장을 겨냥한 4륜 전기자전거

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이동수단이다. 자전거처럼 페달을 밟으면 배터리가 충전되고 다양한 모듈이 적용 가능해 활용 범위가 넓을 전망이다.

기존 전기자전거는 페달을 밟아 체인을 돌리면서 얻은 구동력을 기계장치로 전달하기 때문에 두 바퀴에만 적용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2010년 만도가 선보인 '만도 풋루스'라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페달을 돌릴 때 나오는 힘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이를 배터리에 저장할 수 있다. 이 방식은 복잡한 체인 구조가 필요 없고 네 바퀴를 가진 자전거도 만들 수 있다.

정연우 교수는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복잡한 체인이나 기계구동장치가 필요 없으므로 4륜차를 비롯한

다양한 플랫폼에 적용하기 유리하다"며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전기자전거를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유럽 시장에 맞춰 여섯 가지 모듈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하이브리드 모듈 모빌리티는 페달에 발전기를 연결해 운행에 필요한 전기를 생산한다. 이때 생산된 전기는 8개의 대용량 배터리 시스템에 저장된다. 바퀴 4개에 장착된 인휠 모터(In-wheel Motor)는 그 배터리 시스템에 저장된 전기를 끌어와 동력을 발생시킨다.

이 모빌리티는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변신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우선 전면에 화물을 실을 수 있는 '프런트 카고'와 후면에 화물을 실는 '리어 카고'가 있다. 이런 형태는 유럽에서 자전거 도로로 화물을



하이브리드 모듈 모빌리티의 여섯 가지 모듈

나르는 외국 운수회사 (DHL, Fedex)의 실정에 맞춰 고안된 것이다.

일반 주행용으로는 혼자 타는 '퍼스널'과 두 사람이 타는 '듀얼' 두 가지가 있으며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베이비'와 3세 이상의 아동이 탑승 가능한 '토틸러'가 있다. 연구진은 6가지 모듈을 작동 가능한 형태의 프로토타입의 제작한 다음 시장에

선보일 계획이다.

정 교수팀은 이번 전시회에서 '에어로벤트 브레이크 캘리퍼'도 발표했다. 이번에 제안한 콘셉트는 만도가 기존에 선보인 고성능 캘리퍼에 부족했던 첨단 디자인을 더했다. 기존의 고성능 캘리퍼의 스타일을 세련되게 다듬고, 냉각 기능도 향상시킨 것이다. 그 결과 디자인과 엔지니어링이 융합된 결과물이라 평가받고 있다. iou518@news1.kr

H MART

CUSTOMER SERVICE

TOLL FRE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BURLINGTON WEEKLY SALE OCT. 13 - OCT. 19, 2017

SILKEN TOFU STEW

Bring this signature Korean dish to your table! Perfect for this weekend!

H마트와 함께 손쉽게 똑똑 만드는 얼큰한 순두부찌개! 이제 집에서든 맛있게 순두부찌개를 즐기세요~

Share it @hmartofficial Learn to cook it @hmartusa Follow us @hmartusa



- Organic King Oyster, Mushroom \$3.99
- Washington Fuji Apple \$1.49
- JINGA Tofu \$0.99
- Nagaimo \$4.99
- Fuyu Persimmon \$19.99
- Oriental Sweet Potato Medium \$1.49
- Gobo \$1.99
- Purple Sweet Potato Hawaii \$1.99
- Kabocha \$0.88
- Lotus Root \$1.88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 Beef Chuck Eye Roll Steak \$8.99
- Bone-in Sliced Beef Hindshank \$4.99
- Beef Cut Patelsa Bones \$1.49
- Pork Spare Ribs for BBQ \$3.49
- Sliced Pork CT/Butt Steak \$4.99
- Marinated Boneless Chicken Thigh \$2.99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 Head-on Louisiana Shrimp \$6.99
- TONGTONGBAY Half Cut Swimming Crab \$6.99
- Pollock Fillet \$1.99
- SEA PRODUCTS Half-Shell Mussels \$6.99
- Spanish Mackerel \$2.99

SMART CARD Get smart and save more & big.

- NISHIMOTO Sooka Premium Medium Grain Rice \$9.99
- CJ Cooked White Rice \$9.99
- KWANGCHUNGNONGHYUP Green Tea Seasonal Cover \$9.99
- DONGSUH Maxam Coffee Mix \$19.99

2017년 추석 한마루 고국통신한마루

10월 4일 추석맞이 고국통신 선물세트 최대 50%할인

2017년 10월 15일까지

전화 주문: 201-229-1111 인터넷 주문: www.hmart.com

- KADONA Pure Sesame Oil \$14.99
- CHUNGJONGNE Sunchang Soybean Paste \$8.99
- GOMPYO Wheat Flour \$3.99
- DONGWON Canned Tuna \$8.99
- HAICHREJIA Canned Bai Top Shell \$4.99
- CJ Beksul Sweet Korean Pancake Mix \$2.99
- HORME FOODS Spam \$2.50
- HOUSE Vermont Curry \$2.50
- KTOWN Sesami & Coconut Cracker \$0.99
- SCOTT Bathroom Tissue \$13.99
- ITOBEN Tea Drink \$3.99
- Gmyr 한국산 고급 양파순슬라이서 \$9.49
- Eco 5 Tier Stainless Multi Pot \$17.99
- Eco 5 Tier Stainless Fry Pan \$16.99
- BETTER Open Bath Slipper \$2.99

During the selling process, there may be changes in price, size,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H-MART BURLINGTON STORE: 43 W. Middle Street, Burlington, MA 01803 / TEL: 781-229-1111 / STORE HOURS: Sea - Thu 10am - 9pm / Fri - Sat 10am - 10pm

법원, 어린자녀 차에 방치한 판사 부부 진상조사 착수

판 현지사 체포돼 벌금형...국내엔 법규정 없어 '문화 차이' vs '아동권 차이'...입법 필요성 지적도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아이들을 차에 앉혀둔 채 쇼핑을 해 판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현직 판사에 대한 징계 논의가 본격화된다.

국내법을 어긴 것이 아닌 만큼 문화적 차이로 인한 해프닝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비난 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이르면 10일 설보 판사(35)를 불러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수원지법 소속 설 판사와 남편인 윤모 변호사(38) 부부는 지난 2일(현지시간) 오후 미국령인 판의 한 마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에 여섯살과 한살배기 자녀를 남겨두고 쇼핑을 하다가 주민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현지 법원은 이들에게 경범죄에 해당하는 '차량에 아동 방치' 혐의를 적

용 벌금형을 선고했다. 판이 포함된 캘리포니아 등 미국 20여개 주에서는 6세 이하 아동을 성인의 감독 없이 15분 이상 차량에 내버려 둘 경우 처벌된다.

수원지법은 우선 현지 법원의 판결 내용과 설 판사의 진술, 마트 영수증 등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수원법원장은 진상조사를 통해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설 판사에 대한 징계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평가다. 현직 판사가 해외법을 어겨 외신에 오르내린 점이 품위 손상에 해당할 수 있지만, 국내에선 범법에 해당하지 않는 경범죄인 데다 방치 시간 등 범죄사실에 대한 다툼의 여지도 있다.

45분간 아이들을 차량에 방치했다고 보도한 외신과 달리, 이들 부부는 실제 자리를 비운 시간이 짧았다고 주

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법원도 이들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법원은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외에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도 법관을 징계할 수 있다. 징계는 △1개월~1년 정직 및 보수지급 정지 △1개월~1년 3분의 1 이하 감봉 △견책(서면 훈계) 등이 있다.

남편인 윤 변호사에 대해서도 변형처위의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조만간 상임이사회를 열고 윤 변호사에 대한 조사위원회 회부 여부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민간단체인 변협의 변호사징계규칙이 정한 품위 손상 규정은 그 수위가 법관보다 높지 않은 만큼 조사위에 회부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 대한변협 회장은 "경미한 법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범조인은 현지 법률과 문화를 잘 알고 이를 준수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며 "해외 체류시 이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회원들을 대



KUAM News @kuamnews 판 현지매체 KUAM뉴스' 갈무리

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주의를 환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는 별도로 국내 아동보호법을 좀 더 촘촘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여름 폭염 속에 차량에 방치해 아동이 숨지거나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위험성에 대한 무지나 부주의가 이어지고 있어 법·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동을 차량에 방치하는 행위만으로도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미국과 달

리 한국에는 그로 인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줄 경우에만 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마저도 아동의 피해와 비교해 처벌이 경미하다.

지난해 7월에는 광주에 한 유치원 통학버스에 4세 남자아이가 8시간 동안 방치돼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인솔교사와 버스기사, 주임교사 등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각 금고 8개월, 금고 6개월, 금고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dosool@news1.kr

정부, 세월호특조위 임금소송 항소 포기

법원 "특조위 구성일 1월1일은 자의적인 축소해석"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정부가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관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특조위 조사관들은 1심 판결에 따라 3개월 동안의 기본급 약 3억원을 받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특조위 조사관 43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공무원 지위확인 및 보수지급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한 이후 항소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항소는 원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항소장을 접수한 원심 재판부는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2심 법원에 보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항소장

을 제출하지 않았고 14일이 지나 1심 판결은 지난달 30일 확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조사결과 공개 여부에 대한 소송에서 환경부가 패소했다는 보고를 받고 '정부가 패소한 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를 자제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항소 포기는 문 대통령의 지시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지난달 8일 세월호특조위 소속 김경민 조사관 등 43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공무원 지위확인 및 보수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르면 특조위는 최대 1년6개월까지 조사가 가능하다.

박근혜정부는 2015년 1월1일을 특조위 활동 시작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따라 특조위가 이미 6월 말에 조사기간이 끝났고 이후 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한 3개월의 기간을 준 만큼 더 이상의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특조위에 공문을 보내 2016년 9월30일 이후 3개월 동안은 사무처가 남은 사무를 처리한다고 통보했다.

반면 특조위는 예산이 배정되고 실질적인 조직이 꾸려진 2015년 8월4일을 활동 시작일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에 특조위는 2017년 2월까지 활동기간 보장을 요구하며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을 계속했다. 아울러 특조위는 정부가 조사활동기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밝힌 바가 없다며 지난해 10월17일 소송을 제기했다. 또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정부가 2016년 7~9월분 기본급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특조위 구성일을 1월1일로 보는 것은 자의적으로 축소하는 해석"이라며 "특조위가 구성을 마친 날은 2015년 1월1일로 볼 수 없고 인적·물적 구성이 실질적으로 완비된 2015년 8월4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asd123@news1.kr

충청샘물 약취 원인, 알고보니 취수원? 3곳 중 2곳에서 먹는 물 부적합 판정

(세종=매일경제) MNB 뉴스센터 = 충청샘물의 약취 원인이 취수원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충청남도가 진행한 충청샘물 생수 제조 공장 취수원을 검사한 결과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보도에 따르면, 지하수를 끌어 올린 곳은 모두 3곳으로 이 중 2곳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왔다.

한 곳은 냄새만 났고, 다른 한 곳은 저온일반세균, 중온일반세균, 불소 등이 먹는 물 기준치를 초과했다.

관리 감독 기관인 충청남도는 약취 문제가 제기됐을 당시 취수원 검사는 진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월 검사에서 취수원 수질에 문제가 없었다는 이유에서였다.

충청남도는 처음에는 플라스틱 용기를 약취 원인으로 추정했지만 검사 결과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고, 결국, 민원 접수 20일 뒤에서야 취수원 검사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문제가 된 생수 공장에서 약취 민원이 발생한 건 처음이 아니었다.

지난해에도 약취로 대기업 생수 제품 납품이 중단됐고, 이후 자체 '충청샘물'을 생산했다.

같은 공장에서 OEM 방식으로 납품된 다른 생수 제품 2개는 수질에 문제

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이 역시 제품 한 개씩만 검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취수할 때 취수 파이프라인의 관리 부실인지 아니면 정말 지하수에서 뽑아내는 원수 자체의 수질의 문제인지는 더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앞서 충청샘물은 지난 9월 8일 약취와 관련해 처음 민원이 제기됐다.

충청샘물 2L PET병 제품에서 약품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제기됐고, 이후 국민신문고와 전화문의, 해당업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10여 건이 제기됐다.

문제가 된 제품은 2017년 8월 생산하여 유통된 제품이었다.

충청남도는 민원이 발생하자 즉시 업체를 방문, 제품 4건을 수거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된 제품을 전량 회수·판매 중단 조치토록 권고한 바 있다.

mbnreporter01@mbn.co.kr



충청샘물



지난해 10월 17일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들이 정부를 상대로 공무원 보수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Premier Realty Group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AGENT WANTED
PREMIER REALTY GROUP과 함께 할 에이전트를 모집합니다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제이슨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신보경 Realtor Direct: 508.361.6064 boshin@bostonpremierrealty.com	 줄리전 Realtor Direct: 978.494.2043 julie@bostonpremierrealty.com	 비비안유 Realtor Direct: 617.935.2713 vivian@bostonpremierrealty.com
---	--	--	---	---

Featured Business Listing



식당 매매

보스톤 남부에 위치한 성업중인 손님 확보된 식당매매
 년 매출 \$2,000,000, 최상의 위치, Turn Key Operation
 Owner Financing 가능

Asking **\$715,000**

NEW LISTINGS

LISTINGS

 세탁소 보스톤과 인근에 위치. 드롭오프와 풀플랜트 매매 년 매출 \$320,000 + 고정된 안정적인 수입 Asking \$350,000	 세탁소 보스톤 인근에 위치. 년 매출 \$200,000 + 안정적인 고객층과 새로운 기계들 Asking \$230,000	 살롱 & 스파 Roslindale에 위치. 1,200 S.F. Rent \$2,500 Asking \$45,000	 한식&일식 식당 Plymouth 센터에 위치, Full liquor, Lots of foot traffic, great exposure, recently renovated. Asking \$450,000	 세탁소 보스톤 공항에서 20분거리에 위치 연매상 \$150,000 + Wholesale 좋은동네 무경쟁 안정적인 수입 오너 파이낸싱 가능 Asking \$195,000	1. Full Plant 세탁소 : Marlborough 좋은 위치, Asking \$65,000 2. Full Plant 세탁소 : 보스톤 북부 인근, Asking \$150,000 3. Full Plant 세탁소 : Tewksbury 큰 Mall 안에 위치, 넓은 주차공간. Asking \$30,000 4. 드롭오프 스토어 : Sharon에 위치, \$40,000 5. 보스톤 인근 일식당 : Asking \$225,000 SALE PENDING NEW Full Plant 세탁소 보스톤 인근 North Shore. 연매상 \$190,000 Asking \$165,000
 한식&일식 식당 보스톤 서쪽, Full Liquor 연매상: 1.7M, 좋은 위치 넓은 주차공간 Asking \$599,000 Price Reduced	 일식당 Beer and wine 포함 Lawrence 지역, 좋은위치 Asking \$120,000 Price Reduced	 컨비니언스 스토어 Cambridge에 위치 Asking \$140,000	 비즈니스 콘도 Brookline 현재 세탁소영업중. 좋은 렌트수입 Asking \$509,000 Price Reduced	 한국식당 보스톤 남부에 위치 Full liquor, 안정적인 수입, 넓은 파킹 Asking \$140,000	 세탁소 보스톤 북부 세탁소 안정적인 매출 Asking \$160,000

나원태: 617.642.3156 제이슨전: 617.642.5670
 신보경: 508.361.6064 줄리전: 978.494.2043 비비안유: 617.935.2713



**BERKSHIRE
HATHAWAY**
HomeServices

**N.E. Prime
Properties**

NEW LISTINGS



Clara Paik
617.921.6979



김형진
781.956.0409



Patrick Thomas
617.935.4049



William Glanton
978.394.2017



Vicky Xiao
617.480.6362



NJ Kim
617.615.7596



Just Listed: Single Family
17 Storey Drive, Lincoln, MA 01773
Asking: \$1,529,000
Listing Agent(s): Maria Koral & Clara Paik



Just Listed: Condominium
26 Broad Street #101, Marlborough, MA
Asking: \$355,000
Listing Agent(s): Maria Koral



Just Listed: Business Opportunity
Newton, MA 02461
Asking: \$100,000
Listing Agent(s): Janice Lee



Just Listed: Rental
29 George Rd. Unit 29,
Winchester, MA
Asking Price: \$1,950/mo
Listing Agent(s): Janice Lee



Just Listed: Multi-Family
905C Mass Ave. Lexington, MA
Asking Price: \$625,000
Listing Agent(s): Maria Koral

**FUTURE
LISTING**



Allen Quinn
978.897.2781



이현주
401.935.33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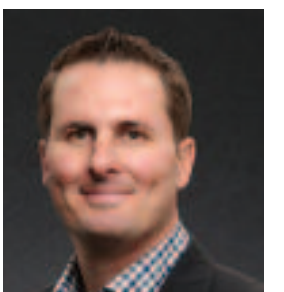
제니스 리
978.806.6023



Madeline Chen
781.491.3228



Kevin Curry
978.852.2969



David J. Oliveri
508.400.0809

Berkshire Hathaway HomeServices N.E. Prime Properties

Lexington Office:

40 Waltham St., Lexington, MA 02421 T: 781.259.4989, F: 781.259.4959

Newton Office:

95 Union St., Newton, MA 02459 T: 617.969.4989, F: 617.969.4959

Belmont Office:

451 Common St., Belmont, MA 02478 T: 617.826.3434, F: 617.826.3446

"에이전트 모집합니다!" We Are Recruiting Agents

NEW LISTINGS



Steve Son
617.290.0623



Ping Bai
617.233.4162



Victoria Tu
978.201.5615



Angela Eleazar
617.319.6657



Ken Tlagae
617.959.5500



Ayla Yildi
781.249.4872



Just listed: Single family
230 High Street Acton, MA 01720
Asking price: \$549,000.00
Listing Agent: William Glanton



Just listed: Town House
4 Deane Street - Unit 4, Maynard,
MA 01754
Asking price: \$449,900.00
Listing Agent: William Glanton



Just listed: Town House
4 Deane Street - Unit 6, Maynard,
MA 01754
Asking price: \$449,900.00
Listing Agent: William Glanton



Just listed: Town House
109 Crystal Brook Way - Unit B,
Marlborough, MA 01752
Asking price: \$284,900.00
Listing Agent: Clif LaPorte



Just listed: Single Family
90 Old Stow Road, Concord,
MA 01742
Asking price: \$569,000.00
Listing Agent: Carol Lenox



**UNDER AGREEMENT:
SINGLE FAMILY**
17 Storey Drive, Lincoln, MA 01773
Listing Agent: Maria Koral



Maria Koral
978.973.6043



Nancy Marcis
713.817.6970



Clif LaPorte
978.424.3045



Leslie Luppold
508.423.1535



Johanna Parlon
978.501.4753



Tianna Johnson-King
336.392.7838

Find your next home
with us online at
bhhsneprime.com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에이치플러스(H+) 양지병원'

발견 어려운 담도 질환, '경구담도내시경'으로 해결

- ... 조영제 활용한 ERCP 대신 두 눈으로 직접 확인, 정확한 진단 및 치료 가능
- ... 충분한 내시경 임상 및 해부학적 지식 필요, 전문 협진 시스템 등 갖춰야

최근 들어 조미란(57세, 가명) 씨는 계속된 피로와 얼굴 황달 증세로 집 인근의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을 찾았다. 복부 CT에서 담도 및 담낭에 담석이 발견되었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내시경적 역행성 췌담관 조영술(ERCP)을 시행했다. 치료 도중 담도에 담석 외 약간의 협착이 발견, 담도를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최신 의료기기인 경구담도내시경으로 조사한 결과 종괴를 발견, 조직검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담도암으로 진단되었다. 담도암을 조기 발견한 덕분에 조 씨는 빨리 수술을 받고 일상 생활을 유지 중이다.

의료 기술의 발달과 정기적인 건강 검진으로 암은 '죽음의 병'에서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한 질환으로 인식이 변했다. 그러나 여전히 공포의 영역으로 남아 있는 암이 있다. 바로 췌장암과 담도암이다. 췌장암과 담도암은 5년 생존율이 각각 10%, 30%로 위암 등 다른 암에 비해 생존율이 낮고 조기 발견도 어려워 수술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췌장암, 담도암 등 췌담도 질환의 조기 발견은 물론 치료까지 가능한 내시경 시술이 주목 받고 있다. 기존 가장 대표적인 췌담도 치료내시경은 내시경적 역행성 췌담관 조영술(ERCP)이었다. 십이지장과 간을 잇는 담도에 도관을 삽입 후 조영제를 투여 해서 췌장과 담도 내부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장비를 통해 염증, 담

석, 종양 등을 제거하는데 활용되어 왔다. 하지만 내시경적 역행성 췌담도 조영술은 조영제 투여 후 나타나는 췌관과 담도의 형태로 병변 위치 파악 및 진단이 가능해 췌장은 어느 정도 정확한 진단을 판단할 수 있었지만 담도는 췌장보다 깊은 곳에 위치해 있어서 관련 질환 진단의 정확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최근 ERCP가 발견하기 어려웠던 담도 질환까지 정확하게 진단,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몸속 깊숙이 자리 잡은 담도까지 아주가는 내시경을 삽입 두 눈으로 직접 병변을 확인하면서 질환을 진단하는 경구담도내시경은 조영사진이 아닌 내시경 영상으로 병변 확인 후 정확한 부위에서 조직검사가 가능해 조기 암 진단은 물론 과거 기술적인 문제로 직접 확인이 어려웠던 담도 전체를 내시경으로 확인할 수 있어 정확한 진단 및 치료가 가능하다.

개인 종합병원으로는 드물게 경구담도내시경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박재석 소화기센터장은 "ERCP의 경우 췌담도 질환의 진단에는 유용하게 활용되었으나 상대적으로 암 진단 확률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다."며 "경구담도내시경은 ERCP와 연계해서 담도까지 직접 내시경을 삽입, 정확한 진단과 함께 내시경을 통한 다양한 시술까지 가능하며 정확도가 높아서 환자가 여러 번

검사가 필요한 상황이 많이 감소된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췌장, 담낭 질환, 경구담도내시경 통해 조기 진단 및 치료 가능해져

몇 년째 국내 사망원인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암이지만, 의료기술 발달과 정기적인 암 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으로 암의 위험도는 낮아지고 있다. 국립암정보센터에 따르면 전체 암의 5년 생존율은 증가했다. 주요 암이라 할 수 있는 폐암, 간암, 위암, 대장암 또한 사망률이 감소했다.

반면 췌장, 담도 등 조기발견이 어려운 몸속 깊숙이 있는 내장의 암은 여전히 위협적이다. 같은 시기 췌장암 및 담도암의 5년 생존율은 낮은 수치로 늘어나는데 그쳤으며, 2015년 사망자 수는 췌장암, 담낭 및 담도암 암 사망자에서 각각 5, 6위를 차지했다.

이렇게 췌장암이나 담도암이 위험한 것은 이들 장기가 신체 깊숙이 위치한다가 구조도 복잡해 조기 발견과 치료가 어렵기 때문이다. 내시경을 십이지장까지 삽입한 후 담도 및 췌관에 조영제를 넣어 질환 유무를 관찰하는 ERCP가 췌담도계 질환을 진단하는 방법으로 널리 활용되어 왔지만 ERCP는 조영제를 통한 간접적인 사진을 활용하는 만큼 정확도가 떨어져, 췌담도 질환을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반면 경구담도내시경은 췌담도계까지 직접 내시경을 삽입, 간접 사진이 아

닌 영상을 통해 병변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경구담도내시경은 아주 가는 내시경을 활용, ERCP가 투사된 조영제 형태로 진단 하는 것에 비해 눈으로 담도의 병변을 직접 확인 후 치료가 가능하여 담도 질환을 보다 정확히 확인, 진단할 수 있다. 또한, ERCP와 마찬가지로 내시경 및 치료기구를 통해 췌장 및 담도 내 염증, 담석, 종양 등을 제거할 수 있고 ERCP로 제거하기 힘든 큰 담석도 제거 가능하다.

경구담도내시경 운용 위해서는 풍부한 임상경험 필요... 협진 시스템 갖춰진 병원 방문해야

췌장 및 담도 질환의 위험이 잘 알려지면서 ERCP 및 경구담도내시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RCP는 국내 피시술자가 약 15% 증가했고, 경

구담도내시경은 대형병원 중심으로 신규 장비를 도입, 운용하는 등 점차 현장 활용도가 높아지는 추세다.

그러나 ERCP와 경구담도내시경 시술을 집도할 수 있는 병원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췌장과 담도는 몸속 깊이 자리 잡고 있어 시술 난이도가 높고, 내시경 운용에 있어서 전문적 지식과 많은 경험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재석 센터장은 "췌장과 담도 질환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경구담도내시경을 통한 조기 검진 및 치료의 중요성 또한 함께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만 췌장과 담도 질환은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만큼 풍부한 임상 경험과 협진 시스템이 갖춰진 병원을 방문, 진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고국 방문 의료 상담 및 예약, 의료관광 휴람의 전반적인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문의는 보스톤코리아 전화 617-955-9112 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카이로프랙틱이란?" : 우리 몸은 남녀노소 모두 31쌍의 척추신경을 가지고 있으며 뇌로부터 이 신경을 통해 신호를 몸 구석구석까지 원활하게 전달해야만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적인 충격 즉, 교통사고나 잘못된 생활 습관 등으로 척추가 어긋나게 되면서 척추신경 압박 및 염증으로 뇌로부터의 신호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여 우리 몸에 통증과 같은 이상이 생깁니다. 이러한 척추의 어긋난 곳을 정확하게 찾아 가장 안전하게 바로잡는 것이 바로 카이로프랙틱입니다.



원장 : Dr. 이정호, D.C.
(Dr. Jeongho Yoo, D.C.)

- Graduated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 Member of Gonstead Seminar of Chiropractic
- Member of Gonstead Methodology Institute
- Certified International Board of Extremity Chiropractors
- 한양대학교 졸업 및 ROTC 47기
- Active license in MA(#3524)

진료과목

- 척추계통 : 목 / 등 / 허리 / 골반 통증, 디스크 질환
- 사지계통 : 어깨, 무릎, 손목, 발목, 턱관절 통증
- 신경/순환 계통 : 손발 저림, 좌골신경통, 두통, 알러지, 소화불량
- 교통 사고 전문 치료 및 변호사 상담 : 물리치료와 병행하여 효과 극대화 및 전문 변호사 연결
- 어린이/학생/성인 자세 관련 통증 및 척추측만 교정



"오직 손으로만 교정하는 정통 카이로 프랙터, Dr. Gonstead Chiropractic을 검색해 보세요"

주요보험: 일반보험PPO, 학교/유학생/여행자 교통사고 보험 등 다수

진료시간 월-목(M-T) : 8am-8pm(야간진료가능) 금,토,일(Fri, Sat, Sun) : Closed





크라우저 앤서 로펌

MIAMI – BOSTON – D.C.

이민법/국제법 전문 로펌 Immigration Law/International Law/Customs Law



Henry Crouser
변호사

스티브 서
변호사

전문 분야

- 전문인력 취업비자 (H-1B)
- 단기연수원 비자 (H-3)
- 주재원 비자 (L-1)
- 특기자 비자(O-1, P-1)
- 취업이민 (EB-2, EB-3, EB-4)
- 종교비자 (R-1)
- 투자이민 (EB-5)
- 투자비자 (E-2)
- 교수 및 연구직 (EB-1, NIW)
- 가족초청이민
- 미국 세관 CBP 압류재산 회수

VISIT US AT :
www.stevesuh.com / www.suhlawyer.com

Crouser & Suh PLLC

1309 Beacon St. Suite 300, Brookline, MA 02446

Tel: 617.274.5723 Fax: 617.566.7982

Email: info@stevesuh.com

다니엘 / 요한계시록 성경세미나

“미래를 아는 특권”

2017년 보스턴 한인들을 위한 성경 예언 연구 세미나

강사 : 박영호 목사
광야소리제작원 원장



매일의 언젠가

- 일. 역사의 종점은 과연 있는가?
- 월. 하늘은 답을 알고있다
- 화. 지구촌 최후의 대제국은 어디인가
- 수. 미국의 선택
- 목. 양의 나라가 용의 나라로 가다
- 금. 세계 단일 정부는 인류의 희망인가?
- 토. 하늘에서 들려오는 큰 외침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날짜 : 2017년 10월 29일(일) ~ 11월 4일(토)

시간 : 오후 7시 30분 / 마지막 날(오전 11시)

장소 : Crowne Plaza Boston - Woburn, 15 Middlesex Canal Park Dr, Woburn, MA 01801

주최 : 보스턴 제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문의 전화 : (317) 374-4786

한인 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긴급 주요 전화

가정폭력상담소(Ex. 33)	617-338-2352
건인	800-632-8075
고등교육위원회	617-727-7785
고등교육정보센터	800-442-1171
공중위생국	617-624-6000
구세군	617-536-7469
국제청	800-829-1040
날씨문의	617-976-6200
로간국제공항	800-235-6426
미아찾기	888-477-6721
백베이역	617-635-9000
보스톤공립학교	617-989-7000
보스톤수도	617-635-4500
보스톤시청	617-641-2830
보스톤총영사관	617-345-7958
사우스릭	800-772-1213
사회보장국	781-237-9110
성폭행	617-492-8300
성폭행	617-637-123
시간문의	617-748-2000
아동보호	800-792-5200
아동학대	617-445-1500
알코올/마약	617-248-0922
여성학대	617-351-4500
온전면허	617-348-8500
웹페이지	800-522-8086
직원봉사	800-564-1234
직접자	800-941-9900
전화신청 (Verizon)	617-555-1515
전화교장선교 (Verizon)	617-343-4475
텍스	800-222-4357
AAA	617-741-5533
FBI	800-392-6100
MBTA	800-572-9300
NSTAR가스	800-592-2000
NSTAR 전기	800-746-4726
RCN케이블TV/전화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인회	781-933-8822
뉴햄프셔 한인회	603-767-1356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401-368-0467
메인 한인회	207-756-0092
버몬트 한인회	802-734-2521

주요 단체

국제연합기장선교연합회	978-407-7554
국제연합기장선교연합회(네)	603-889-8201
뉴잉글랜드공공안전위원회	617-438-9763
뉴잉글랜드공공안전위원회	978-902-8305
NE교육지원위원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문인협회	978-688-3137
뉴잉글랜드산악회	774-270-1948
뉴잉글랜드시민협회	508-962-2689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해변대전우회	617-833-1360
대대사주세태대전우회	603-894-5425
민주평통보스톤협의회	413-535-0916
보스톤 대한체육회	781-326-9009
보스톤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미노인회	978-569-4900
재미과학기술자협회	857-998-7043
재향군인회	781-854-8880
세력인협회	508-826-5270
이북5도도민연합회	978-514-3399
한인학교연합회	781-424-5269
R한인경제인협회	401-481-4900
한국인양자(동화)메인	207-878-5652
625참전유공자회	978-725-9597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781-367-5993

동창향우동호회

건국대학교동창회	401-738-8735
경기고등학교동창회	508-995-7242
경기여고동창회	781-861-0437
경복고동창회	617-921-8799
고려대학교 교우회	617-780-2999
뉴잉글랜드산악회	774-270-1948
배재중,고등학교동창회	978-474-4780
보스톤 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인사회관	617-789-4964
산사랑	774-270-1948
서강대동문회	617-599-9869
서울고 동문회	617-792-2635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서울신학대학교동창회	
성공관대동창회	802-734-2521
양정중고등학교동창회	508-541-6969
이화여고동창회	617-277-0730
이화여대동창회	978-390-1552
중앙대학교동창회	603-622-8883
강원대민회	617-875-1801
충청향우회	678-717-8800
한양대동문회	781-548-9052

언론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한인회보	781-933-8822
한국일보(뉴욕)	718-482-1111
Grapevine Times	781-548-9945

종교

기독교	
구세군 몰든교회	617-792-8780
그린랜드 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글로벌 미션 보스톤교회	617-913-3074
나사렛사람의교회	781-439-1840
낮아짐교회	781-832-2014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갈보리교회	413-789-9888

구세군몰든교회	617-792-8780
그레이크연합감리교회	203-459-8517
그리니치한인교회	203-861-1134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나사렛사람의교회	781-439-1840
내수아한마음교회	603-888-80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잉글랜드한미교회	413-567-9142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뉴햄프셔감리교회	617-990-7619
뉴햄프셔장로교회	603-437-5134
뉴햄프셔한인교회	603-264-6799
라이코스교회	978-387-1115
라이스한인침례교회	508-926-8236
로드아일랜드성동교회	401-353-0983
로드아일랜드제일교회	401-944-2520
대생명의길장로교회	401-821-2311
메리맥 교회	978-806-1363
목양교회	617-223-1690
무지개교회	207-774-1617
밀알한인교회	978-244-0691
렉싱턴 풍성교회	617-953-0856
버클랜드 침례교회	617-864-5948
보스톤 국제교회	617-459-6479
보스톤 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톤 사랑의교회	617-285-8070
보스톤 사랑제일교회	978-844-2404
보스톤 은혜장로교회	781-715-0571
보스톤 세로남교회	617-947-6765
보스톤 새생명교회	978-777-1800
보스톤 생명의 교회	978-578-6987
보스톤서부장로교회	781-894-3958
보스톤 성결교회	781-275-8233
보스톤 한울교회	781-396-1004
보스톤 소망교회	781-686-5526
보스톤시온성교회	781-275-1763
보스톤안식일교회	781-279-3270
보스톤 온누리교회	781-933-7044
보스톤웨슬레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톤 장로교회	508-435-4579
보스톤 제일교회	617-458-2733
보스톤 주님의교회	617-966-9608
보스톤 중안교회	617-230-5004
보스톤필그림교회	857-636-9985
보스톤 한인교회	617-739-2663
보스톤 한우리교회	978-454-0454
보스톤한인연합교회	617-923-9581
북부보스톤감리교회	978-470-0621
비전교회	617-308-2391
새빛교회	781-652-0001
새예루살렘교회	774-249-0022
선한목자장로교회	904-400-9386
성요한 교회	781-861-7799
순복음 보스톤교회	617-413-5372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413-789-452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1-2477
시온감리교회	401-739-8439
안디옥 교회	978-534-3394
열방교회	617-620-3352
에이더 벨렘교회	978-274-2369
엠허스트 한인장로교회	413-549-6495
엠허스트 시온교회	413-449-9200
올스톤한인교회	617-642-7403
우스터 교회	508-799-4488
우스터장로교회	781-354-1843
위십프린티어 교회	918-876-2815
임마누엘 연합교회	978-394-3060
자연교회	603-437-6151
좋은땅교회	978-930-6613
지구촌방주교회	617-838-6434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연합장로교회	781-861-3877
퀸시영생장로교회	617-770-2755
하버드 한인선교회	617-441-5211

불교	
문수사	781-224-0670
서운사	508-755-0212
심광사	617-787-1506
원불교	
원불교보스톤성당	617-666-1121
천주교	
보스톤 한인천주교회	617-558-2711
로드아일랜드한인천주교	401-499-8258

간판

초이스간판	617-470-1083
-------	--------------

건강식품

보스톤정관장 브랜드스터어	781-238-0303
---------------	--------------

건축

글로벌건축	617-645-6146
김원태 건축사	617-620-8242
미남건축	508-650-8844
선아건축	508-230-5878
솔로몬 DRYWALL	978-761-0623
신중축류평사이딩 청문	617-999-9616
아들드 건축	617-833-1360
파인항건축	617-688-6833
한샘(주)	781-487-0101
ECO Construction	781-608-2971
E/Y 건축	617-590-3472
J.C건축	781-738-7871
J&D 인테리어	617-645-6661
LEE'S건축	617-538-0558

골프 개인

골프 개인 PGA	617-458-2733
골프스쿨	617-775-5527
남궁연골프교실	978-474-4780
ABC골프	603-401-7990

최현준 골프 레슨 339-223-4700

공인회계사

김양일 회계사	617-901-0707
김창근 세무사	781-935-4620
노성일공인회계사	781-863-2232
이현주 회계사	781-944-2442
Hana Rehab Clinic	617-455-8073
정진수회계사	508-584-5860
한미선회계사	617-792-2355
한성애회계사	617-283-7151

꽃

미스틱화원	617-666-3116
데코플라워	617-875-0648
앤더슨꽃집	781-894-1843

금융/모기지

인디펜던트(류영욱)	617-777-2929
에이저 리	781-591-2722
이중수파이낸스	617-799-6158

냉동/에어콘/히팅

JK 플러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노래방

진 노래방	617-782-9282
-------	--------------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톤공립도서관	617-539-5400

당구장

올스톤당구장	617-782-0969
--------	--------------

동물병원

김문소 동물병원	978-649-6513
윤상래 동물병원	978-343-3049
제임스킴 동물병원	978-658-5282

떡/진차/반찬(주문)

형제떡집	978-343-6080
장음식주문	781-648-0584
한아름	617-547-8723

미용실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크스킨케어	978-468-0039
그레이크스킨케어	617-331-1011
뷰티룸 헤어살롱	857-284-3879
세리 미용실	781-676-7374
압구정동열골방	617-437-0378
웨스트메인헤어	508-734-0446
티케이헤어디자인	508-768-7675
프로페셔널헤어디자인	978-772-7886
헤어 스텝	617-787-1735
헤어 크렌	617-773-1220
헤어 Collage	617-354-4660
미용실 코리아LEE	617-913-3559
AYER BEAUTY SALON	978-772-6555
최희의 헤어(Bloss Image)	617-818-5596
헤어앤드 그레이크스살롱	808-879-7722
MIN-AH MAKEUP	508-617-7177
Scotty's of Lexington	718-861-1277

돌상 대여/폐백

해피돌상	617-249-3131
폐백	978-688-0929

방송국

엔티비보스톤사업국	617-955-9112
-----------	--------------

변호사

김공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국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김성국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박현종특허변호사	978-474-8880
성기주변호사	617-504-0609
스티브 서 변호사(이민법)	203-852-9800
워드랜드/백커먼변호사	203-324-6155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정선진변호사	617-230-0005
피터전변호사	203-386-0503
JOHN DOWNEY 법률사무소	647-964-5809
STEVEN S. KIM 변호사	617-879-9979
Joy Lee 변호사	617-624-0292
Young Lee Danesh	617-367-4949

병원

가정의	
그레이크스 김 가정의	978-475-5656
내과	
송민근	617-696-7600
하버드뱅크(이차용)	617-421-2282
한서동내과	401-722-0305
한성식내과	978-854-6376
산부인과	
최의웅산부인과	401-726-0600
이윤노산부인과	508-427-3000
소아과	
장경이 소아과	978-687-2119
심리상담	
배주은심리상담사	617-566-1055
심리상담	
김자향심리치료사	781-789-8670 x6080

양미이웨일리카운셀링 508-728-0832

인나경심리상담사 617-738-9622

재활의학

가족물리치료병원	781-365-1876
닥터스통증병원	617-731-1004
성진우추추신경전문	978-688-6999
추 남남 D.C.	617-230-4250
Hana Rehab Clinic	617-566-1199
보스톤스텐드카이로	617-277-0648

치과

김동원치과	978-689-9363
김정규 치과	860-623-2601
브라이언치과	978-655-1583
신영목 치과	617-265-5606
안 치과	781-647-8000
엑셀패밀리덴탈	617-471-6970
이영환치과	508-987-8228
이요셉치과	781-431-7295
케임브리지덴탈	617-492-8210
캐탈라치덴탈야부스	617-871-1482
퀸지소치과	617-471-2184
송영진치과	978-459-0594
프로스펙트덴탈그룹	617-576-5300
한은애교정치과	781-894-1127

PROSPay

worldpay



EMV 도입이
시급합니다

아직도 카드를 긁고 계십니까?
고객님의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EMV 도입이 시급합니다!
지금 바로 문의해 주십시오!



<고객 절약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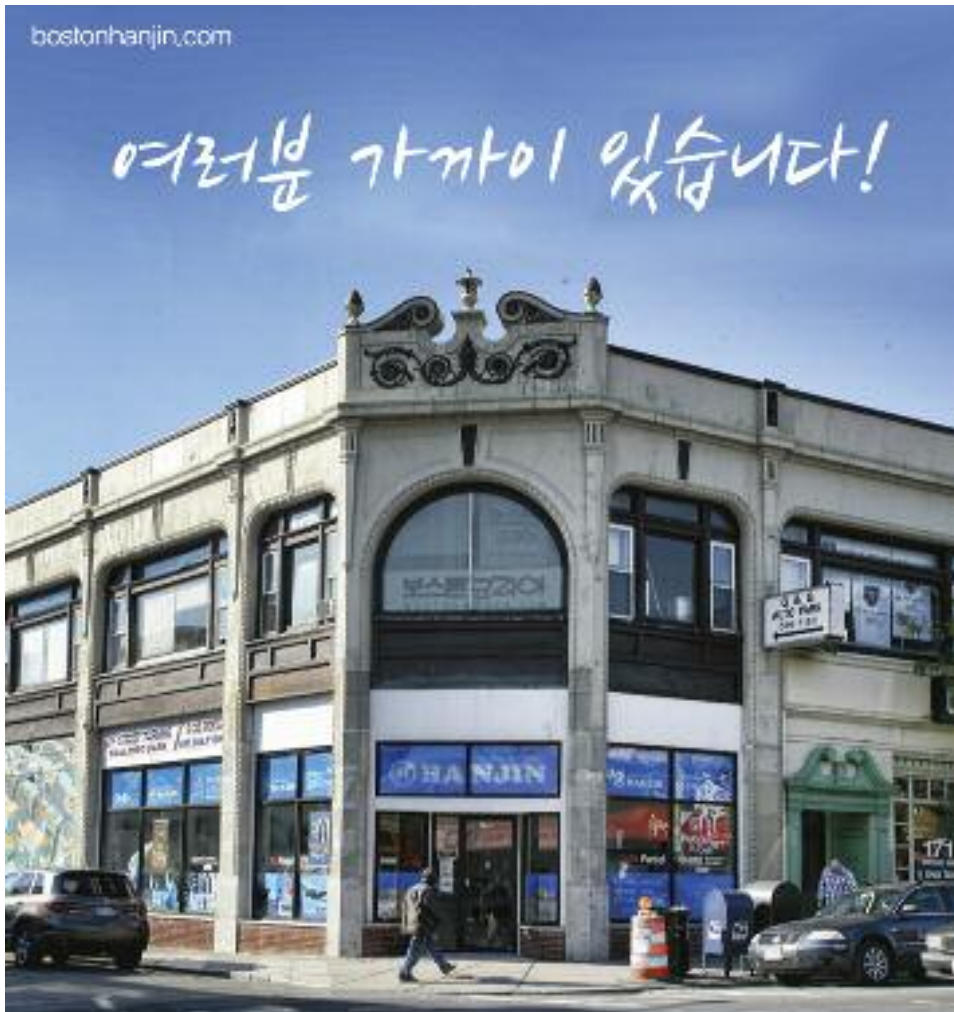
- 본촌: 20% 절약
- 돼지공: 16% 절약
- Mr. Sushi: 19% 절약
- VIP Nails: 22% 절약
- Queens Nails: 24% 절약
- Great Nails: 37% 절약
- My Cleaners: 41% 절약
- Classic Cleaners: 13% 절약
- Professional Cleaners: 23% 절약



Agent/상담원 모집

TEL_617.466.2212 TOLL FREE_888.604.2190

158 Everett Ave. Unit 3 Chelsea, MA 02150



렉싱턴과 콩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아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성인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기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17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dentallexington.com
www.icodentallexington.com

- Dr. 차 영 주
치과 일반의
-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 Dr. Larisa Turkenich
치과 일반의
-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 Dr. 오 동 현
교정 전문의

한진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T: 617.782.2424 F: 617.782.2421
귀국이사 / 로컬이사 / 파워딩 / 택배 서비스

여권사진 / 이벤트 사진 / 영상 촬영 및 편집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 디지털 포토 & 포토샵 튜터링 Nabis Studio

성양푸안 다블뤼 보스턴 한인성당
St. Andrew's Dabuluy Parish of Essex Christ

주일미사(한국말)
오전 11시30분 (교중미사)
오후 4시30분 (청년주관)

영어미사 (English Mass)
오전 10시

평일미사
<화> 오전 10시 30분
<목> 오후 7시30분

매달 첫 토요일 성모신심미사
<트> 오전 10시 30분

고백성사
미사 시작 30분전

45 Ash St. Newton MA 02466 / 617-558-2712, 617-244-9685
office.kccb@gmail.com / www.stdaveluychurch.org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삶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십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턴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당목사 유 경 열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보스턴은혜장로교회
BOSTON GRACE PRESBYTERIAN CHURCH

여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여와 권리와 기쁨의 배너라 (딤후 3:15)
담당 목사 / 우시환

주일예배 / 오후 9:00	금요기도회 / 저녁 7:30
유치 / 유치 / 초등 / 중고등부예배 / 청년부모임	
Grace Bible Study / 수 7:30	LIFE 모험 / 주일 4:00

335 Cambridge St. Burlington, MA 01803
Tel: (781) 715-0571 / Fax: (781) 645-0407
bostongracechurch.org

보스턴 밀알 한인 장로교회
뉴잉글랜드노회(KAPC)

가르치고 전파하라
(마 4:23)

예배시간:
주일: 1부 9:30, 2부 11:00
금요일: 8:00

밀알한국학교 운영

주소: 15 Alpha Rd.
Chelmsford MA 01824
전화: 978.501.9117
www.milal-church.org
Lexington에서 25분,
H-Mart에서 15분 거리

담당목사: 박일종 목사

성경대로 믿으며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실천하는 교회

사랑제일교회
LOVE FIRST PRESBYTERIAN CHURCH

담당 목사: 권종삼
Faith Theological Seminary, M Div.
New York Univ. M.E.
한양대학교 대학원
한기총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노회 소속

교회 예배 안내	
주일 예배	오후 2시
주일 학교	오후 2시
전도인 공부	오후 4시
화요 공부	오후 7시
수요 예배	오후 7시
구역 예배	각 구역별

* 모든 예배는 영어로 동시 통역됩니다.
All services are translated in English simultaneously

461 King St. Littleton, MA 01460 Tel: (978) 696-3293, (978) 844-2404
www.Lovefirstchurch.com

보스턴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 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주일학교: 오후 2시
중고등부: 오후 2시	대학부모모임: 주일 1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당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 781.894.3958 목사관 : 617.969.5809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

예수님을 알고 그를 알리자

<예배시간>
주일: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우스터한국학교: 토 9:30~12:30

114 Main St. Worcester, MA 01608
Fax: 508.799.4488
<http://workmc.org>

담당목사: 김현태
617.780.4178

사업의 시작은 이경해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코리아 여행사

617.267.7777
1.800.473.1922

4989 부동산 매대는

BH HS 버크셔 헤서웨이
BERKSHIRE HATHAWAY

617-969-사구팔구

www.bhhsneprime.com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해 막혔던 담을 예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겸손.. 은유.. 인내.. 사랑.. 용납.. 부끄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금요찬양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 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유스 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금 오후 8: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7:00
청년모임	주일오후 12:30
속회모임	수 - 주일 속회별
중보모임	화,목 오후 8:00, 주일 오전 9: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2:30, 수 오전 9:30, 금 오후 9:30

비전 교회
80 Mt. Auburn St., Watertown, MA 02472 Tel: 617.744.9557
www.gracevisionumc.org

UMS
신용카드결제 전문 기업 SINCE 1994

15년동안 한인 비즈니스의 크레딧 카드 솔루션을 책임져 왔습니다.

전문성과 기술력으로
탁월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UMS**

flex 2in1 UP SOLUTION

UMS는 뉴저지에 본사를 둔 카드결제 전문회사로서 미 전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FlexGift 기프트카드 프로그램, 자회사 UP Solution을 통한 POS 시스템, 모바일 결제 시스템 등 필요한 모든 제품과 서비스들을 제공, 최적의 환경에서 비즈니스를 하실 수 있도록 돕습니다.

UMS 보스턴지사 공식딜러 **이선호**
781.266.7245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영각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人

辻 (십)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Jesus replied: "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mind.' This is the first and greatest commandment.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And the second is like it: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All the Law and the Prophets hang on these two commandments." - 마태복음 22:37 - 40.

이 두 계명이 기독교(基督教)의 상징인 십(십자가)을 그린다.

하나님 삼위일체(성부(聖父), 성자(聖子), 성령(聖靈))을 'I' 으로 하늘과 땅을 가로 지르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 'L' 으로 연결하는 것. 그래서 'L' 을 상징한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두 차례 복역하고 최근까지 각종 반(反)정부 불법시위 등을 주도해 온 인사가 국무총리 비서관에 임명된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총리실은 두 달 반이 지나도록 이 인사의 임명 사실을 밝히지 않아 각종 자료에 인물 정보 조작 등재되지 않은 상태다.

총리실은 지난 7월 고위 공무원단 인사를 여러 번 단행하면서 좌파 시민단체 출신인 정현곤 시민사회 비서관만 인사발령에서 누락, 고의적으로 숨긴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지난 7월 31일 총리실 별정직 고위공무원(4급)으로 정현곤 씨가 시민사회 비서관에 임명됐다.

그러나 총리실은 정씨의 비서관 임명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정씨는 이후 비서관 자격으로 각종 시민단체 회의 등에 참석하며 정부 지원 방안 등을 조율해 왔다.

정 비서관은 과거 학생, 노동, 환경 운동 등을 오래 해온 시민단체 출신 정도로만 알려져 있다.

고위 공무원단은 청렴, 도덕, 의무이행과 업무상 이해충돌 방지 등을 위해 개인 신상이 구체적으로 공개돼 상시 감시를 받아야 하고 재산공개 대상에도 포함된다.

고위 공무원단 임명 때 언론보도자료를 내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지난 7월 당시 공보실장, 정무실장 등 고위 공무원 인사는 모두 공개됐고 이후에도 비서관 인사는 모두 보도자료로 공개됐다.

그러나 총리실은 "정 비서관만 빠진 것은 단순 업무착오였다." 는 설명뿐이다.

각종 보도에 따르면 정씨는 '자민투 위원장' 과 참여노연 대중사업국장, '시민단체 연대회의 정책위원장', '민중화해협력범국민 협의회 사무처장' 등의 직함으로 활동해왔다.

이 기간 중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는 책(침안함을 묻는다)을 공동저술하고 관련 시위를 조직하거나 제주 해군기지 건설반대, 밀양송전탑 공사반대 시위 등 각종 반정부 불법시위를 주도하거나 참여해 왔다.

특히 총리 시민사회 비서관실 등은 현재 국방부가 진행 중인 감정마을 반대 시민단체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관할하고 있는데 이를 반대해온 단체의 대표가 해당 업무에 관여하는 셈.

앞서 정 비서관은 1987년과 1997년 각각 건대 점점 농성사건 주도과 북한 건국이념과 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의 활동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두 차례 복역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에도 2000년대 들어 두 차례 방북(訪北)

하기도 했다.

정 비서관이 임명된 것은 통상 총리실 정부 직 인사가 그렇듯 청와대가 나선 것으로 정부 안팎에선 보고 있다.

특히 정 비서관이 최근 잇따른 중복성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와 친분이 깊고 대북 관련 활동을 같이 해온 것으로 알려져 문 특보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7월 31일 총리실 별정직 고위 공무원(4급)으로 정현곤 씨가 시민사회 비서관에 임명됐다.

그러나 총리실은 정현곤 씨의 비서관 임명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정씨는 이후 비서관 자격으로 각종 시민단체 회의 등에 참석하며 정부 지원 방안 등을 조율해 왔다.

정 비서관은 과거 학생, 노동, 환경 운동 등을 오래 해 온 시민단체 출신 정도로만 알려져 있다.

고위 공무원단은 청렴, 도덕, 의무이행과 업무상 이해충돌 방지 등을 위해 개인 신상이 구체적으로 공개돼 상시 감시를 받아야 하고 재산공개 대상에도 포함된다.

고위 공무원단 임명 시 언론보도 자료를 내는 이유도 그 때문이며 지난 7월 당시 공보실장, 정무실장 등 고위 공무원 인사는 모두 공개됐고 이후에도 비서관 인사는 모두 보도자료로 나왔다.

10월 10일과 18일이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높은 날로 신경을 써왔는데 '북한 창건일' 인 10월 10일은 무사했고 중국 시진핑 주석의 새 임기 시작일인 10월 18일도 무사 할까?

미국 합참의장은 지난 9월 26일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북한이 곧 ICBM을 보유하게 될 것" 이라면서 미 본토 방위를 위한 요격미사일을 21기 더 배치할 것이라고, 북한은 이미

전시체제로 들어간 것.

辻: 道路 도로 - "큰 길 십".

十은 이 글머리에 말씀드린대로 인간이 하늘 나라(天國 천국)를 사랑(人)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人)하는 것. 十로 상징되는데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이해가 쉬우나 보이지 않는 천국을 사랑하는 것은 '보이는 사랑(可視愛 가시애)' 으로 증거해야 하는 어려움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안 보이는 사랑(不可視愛 불가시애)' 으로 남아 있는 것.

먼저 止=止: 乍行乍止 사행사지 - 쉬엄쉬엄 갈 것. ① 夕: 毛長 모장 - 털 자랄 삼. ② 止: 停也 정야 - 그칠 지. 쉽게 풀면 走는 쉽게 'Go & Stop: 가고 서는 것을 되풀이'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사람이 '움직이는 것과 휴식' 을 '사행사지(乍行乍止: Go & Stop)' 로 표시한 것.

이 인간의 Go & Stop(또는 행(行)과 지(止))은 사람이 땅에 '살다가 끝나는 죽음' 을 되풀이 하는 것을 표현한다.

인 '인생 길' 에 十 사람이 동행(同行)하는 것이 '삶의 행진' 또는 '인생(人生)' 이란다.

이 人生이 인자(人子) 예수님의 견본을 그리며 살아가는 것 = 十生(십생) 곧 '하늘과 땅(十)' 에 '生: 主 - 주님의 숨결' 을 영원토록 이어 가는 것.

성경은 '영생(永生)' 이라 이름한다. 땅에서 사는 生(생)은 주(主)님의 숨결(主)을 통해 十의 영생(永生)을 증거해야 하는 것.

그래서 生은 하나님의 숨결(主)에 땅에 머무는 十은 육신이 썩어 土(흙)이 되고 흙 위에 솟은 十은 영원한 생명의 十으로 하나님 식구로永生(영생: 영원히 삶)한다는 뜻.

그래서 辻을 타고 있는 生인지를 반드시 확인해 볼 것.

삶(生)과 죽음(死)이永生과 永死에 걸려 있으므로...

내가 보고 싶은 한국방송 · 영화를 원하는 시간에 고화질로 즐기세요

TBO PLAY

보스톤코리아
MA, RI, NH 지역 공식 딜러



Plus 상품
방송 3사

\$14⁹⁹

Premium 상품
방송 3사
지상파 / 케이블

\$24⁹⁹

VIP 상품
방송 3사 / 중편
지상파 / 케이블
Live / 스포츠

\$34⁹⁹

*전상품 무약정

마음대로
골라본다
\$14⁹⁹

KBS MBC SBS

Clean Site KBS MBC SBS SBS Plus tvN XTM On Style Mnet O'live OCN

공중파, 케이블, 최신 영화, 뮤직비디오 까지 대한민국 모든 방송 콘텐츠를 모두 즐기는 The Best On-Demand, TBO 집에서 TV처럼 편하게 IPTV TBO Play, 온라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TBO 내 손 안의 미디어, TBO Touch (출시예정)까지 다양하게 즐기세요.

The Best OnDemand, TBO

'블랙' 송승헌x고아라, 14세차 커플 첫 장르물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 배우 송승헌과 고아라가 데뷔 후 처음으로 장르물에 도전한다. '블랙'을 통해 14세 나이 차이를 극복한 케미스트리를 선보일 수 있을지, 첫 장르물 도전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블랙'은 송승헌과 고아라, 이엘, 김동준 등 신선한 캐스팅으로 화제를 모은바 있다. 송승헌과 고아라가 데뷔 이후 처음으로 장르물에 도전한다는 점 뿐만 아니라 드라마 '신의 선물-14일'의 최란 작가와 '보이스'를 통해 감각적인 연출을 인정받은 김홍선 감독이 OCN 장르물로 뭉쳤다는 점에서 시청자들의 기대가 더욱 커졌다.

송승헌은 "연기자로서 배우로서 예전부터 스릴러, 판타지 이런 장르를 해보고 싶었던 것 같다. 사람이 아닌 역할은 실제로 해볼 수 없는 역할이기 때문에 해보고 싶었던 차에 '블랙'을 제안 받게 됐다"면서 "극 중 저승사자는 기존의 어떤 캐릭터 보다도 감정이 없는 인물이다. 형사한 무감각일 때와 저승사자 블랙일 때의 차이점을 연기하는 게 재미있었고 도전이었다. 그 부분이 점이 초반에 어려웠다. 인간의 감정을 못 느끼는 역할이 저한테는 숙제였던 것 같다.

인간들을 만나면서 인간의 감정을 느끼는 재미를 느끼실 것"이라고 털어놨다.

고아라는 장르물 도전 소감에 대해 "장르물이 처음이라 신기한 부분이 많았다. 기존 작품들과 현장 분위기가 달랐다. 모니터링을 하면서 더 열정이 생기더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송승헌 선배님이 극 중 1인2역을 하신다. 저승사자였다가 어리바리하고 귀여운 형사 한무강이라는 역할로도 나오신다"면서 "현장에서 재미있는 애드리브가 많으시다. 장난기도 많으시다"고 덧붙여 눈길을 끌었다.

마지막으로 '블랙'과 '도깨비'의

피할 수 없는 비교에 대한 배우들의 생각도 들을 수 있었다. 송승헌은 "'블랙'은 저승사자와 죽음을 예측하는 여자, 그리고 죽음을 막으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다"면서 "저승사자가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도깨비'와 비교할 수밖에 없다. 그것에 대한 우려나 궁금증은 첫 회만 보시면 해소될 것 같다. 다른 소재나 장르가 도깨비와는 다른 차별성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보시면 알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편 '블랙'은 오는 14일 밤 10시 20분 처음 방송된다.

aluemchang@news1.kr



'해투3' 김생민, 유재석 영수증 분석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 KBS2 '해피투게더3'에 출연한 통장요정 김생민이 유재석의 영수증을 낚날이 파헤친다.

'김생민의 영수증'을 통해 데뷔 25년만에 제 1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김생민은 이날 녹화현장에서 깜짝 파견근무(?)를 펼쳐 눈길을 끌었다. '해투동' MC 유재석, 박명수, 전현우, 조세호, 엄현경의 영수증을 분석해 재무설계를 해주는 '출장 영수증' 코너를 진행한 것. 무엇보다 김생민은 유재석의 영수증을 분석해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유재석이 연예계 대표 '바른 생활 사나이'로 정평이 나있는 만큼, 영수증에서 어떤 허점을 찾아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 것.

이 가운데 김생민은 유재석에게 "수작 스텐트!"를 외쳐 귀를 종긋하게 만

들었다. 이유인즉슨 유재석의 영수증에서 '피부과 4만4000원'이라는 소비내역을 발견한 것. 이에 유재석이 "일주일에 1~2회 피부과에 간다"고 설명하자 김생민은 "절실함이 있다면 피부과 보다는 사우나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일갈해 웃음을 자아냈다.

나아가 김생민은 "피부과에 갔다는 것은 자기만 어려 보이겠다는 수작이다. 명수 형을 버리고 혼자만 CF를 찍겠다는 스텐트"이라며 유재석은 물론, 박명수에게까지 의문의 1패를 안겨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그런가 하면 김생민은 유재석의 또 다른 소비내역을 보고 "부부금융 그레이트"를 선사해, 영수증에서 포착된 유재석, 나경은 부부의 생활에 궁금증을 높였다는 후문.

aluemchang@news1.kr

10월 15일 - 10월 21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p>쥐띠 인내하고 양보하면서</p> <p>●운수:편하게 실 틀이 없을 정도로 상황이 바쁘게 돌아갑니다. 자신의 건강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과로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하겠습니다. ●금전: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입니다. 내가 보는 것만 가지고 결론을 내리거나 평가하지 마세요. ●애정: 서로가 인내하고 양보하면서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결국 시간이 다 해결해줄 것입니다. 84, 72, 60, 48, 36년생은 17, 20일 길일, 19, 21일 주의.</p>	<p>소띠 현재의 흐름을 유지하고</p> <p>●운수:주변상황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그것에 휩쓸리지 말아야 합니다. 중심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어야 실수도 하지 않게 됩니다. ●금전:현재의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판단력이 부족한 시기이니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애정:수상쩍은 기미가 느껴집니다. 끝까지 파헤쳐서 결론을 낼 것인지 힘들어도 받아들이는 것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85, 73, 61, 49, 37년생은 16, 21일 길일, 15, 20일 주의.</p>	<p>범띠 평범함 속에서 행복을</p> <p>●운수:다하지도 말고 빠지도 말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합니다. 평범함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금전:크고 대범하게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수동적인 태도는 금전운을 살릴 수 없습니다. ●애정:남몰래 좋아하면서 표현하지도 못하고 마음속으로만 전전긍긍하지 마세요. 상대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기 위해 용기를 내어야 합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19, 20일 길일, 15, 21일 주의.</p>
<p>토끼띠 가벼운 곳은 굶어주고</p> <p>●운수: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진행하여 실수하지 않도록 하세요. 모든 일을 신중하게 생각한 뒤에 시도해야 합니다. ●금전:재산은 모으기보다 지키기가 더 어려운 것입니다. 절약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세요. ●애정:상대의 마음을 세심하게 읽지 못하고 무관심하기 쉽군요. 자상하게 가벼운 곳은 굶어주고 아픈 곳은 어루만져 주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은 15, 18일 길일, 16, 19일 주의.</p>	<p>용띠 감사하는 마음으로</p> <p>●운수:생각대로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금전:경제적인 여건이 차츰 나아지고 있습니다. 예상외의 수입으로 은행잔고도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애정:불만의 마음을 갖기 전에 상대를 폭 넓게 이해하고 따뜻하게 감싸주세요. 역시 이 사람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합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16, 18일 길일, 15, 17일 주의.</p>	<p>뱀띠 폭풍이 치다가 곧 해가 나는</p> <p>●운수:참용성이 부족해지고 회로애락의 감정이 자주 변하는 때입니다. 일에 싫증을 잘 느끼고 환경의 변화를 원하게 됩니다. ●금전:유화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극단적인 방법으로는 손해 보게 될 뿐입니다. ●애정:마치 강한 비바람과 폭풍이 치다가 그치고 곧 해가 나는 것과 같군요. 불같이 화를 내지만 금시 언제 그랬는 듯이 풀리게 됩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17, 20일 길일, 15, 18일 주의.</p>
<p>말띠 미련을 두지 말고</p> <p>●운수:사소한 일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지 마세요. 불필요한 고뇌에 빠져서 잠을 못 이루는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금전:자신의 분야 밖의 일은 관여하지 않도록 하세요. 소득도 없이 파곤할 뿐입니다. ●애정:객관적으로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진실이 없거나 사랑에 성의가 없는 것이 확인되면 더 이상 미련을 두지 말고 포기하도록 하세요. 90, 78, 66, 54, 42, 30년생은 18, 21일 길일, 16, 19일 주의.</p>	<p>양띠 제삼자를 통하도록</p> <p>●운수: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이 밝혀지면 오히려 난처한 입장에 놓일 수 있습니다. ●금전:일을 해결하려면 제삼자를 통하도록 하세요. 독단적으로는 해결하려고 하다가는 더 늦어지게 됩니다. ●애정:온전히 마음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만 생각을 하거나 상대의 못마땅한 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19, 21일 길일, 16, 17일 주의.</p>	<p>원숭이띠 자기계발을 해야</p> <p>●운수:자기계발을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새로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변화를 시도하는 것에 성공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금전:피땀 어린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수입 면에서는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격이 되겠습니다. ●애정:용기내서 일단 만나고 편하게 대화를 나누어보세요. 그동안 불편했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16, 20일 길일, 18, 21일 주의.</p>
<p>닭띠 미래를 바라보는 안목이 필요한</p> <p>●운수:뒤편지 입에서 나오는 대로 생각 없이 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뒤에 가서 크게 후회할 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금전:미리 미래를 바라보는 안목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적은 이익을 탐내다가는 도리어 손해 보기 쉽습니다. ●애정:일정거리를 유지하면서 적당히 관계를 이어가야 할 때입니다. 상대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93, 81, 69, 57, 45, 33년생은 17, 21일 길일, 16, 19일 주의.</p>	<p>개띠 돌 하나에 새 두 마리가 잡히는</p> <p>●운수: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는 태도가 행운을 부르는 시기입니다. 작은 일에서도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금전:봉어를 낚으려다가 잉어를 잡고 돌 하나에 새 두 마리가 잡히는 격인 운세입니다. 우연치 않게 기대 외의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애정:서로간의 신뢰를 회복할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오는 이 시기를 잘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18, 19일 길일, 17, 21일 주의.</p>	<p>돼지띠 미리미리 계획을 잘 세워야</p> <p>●운수:큰 도움은 아니더라도 평소 보이지 않던 관심과 배려는 원활한 인간관계에 좋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금전:착실하게 모아서 크게 쓸 수 있도록 미리미리 계획을 잘 세워야 할 것입니다. ●애정:누구를 좋아하면서도 아직은 마음속에만 간직만 하고 있다면 이제는 솔직하게 표현을 해보세요. 서로에 대한 애정이 더욱 돈독해질 것입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16, 19일 길일, 18, 21일 주의.</p>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스시셰프, 스시헬퍼, 스시 배우실분
파트타임/풀타임 가능
T. 646-246-2721 (연락처 남겨주세요)

룸렌트 및 매매

광고 문의

세탁소 판매

드라이크리닝 풀 플랜트 + 셔츠유닛

프라임 로케이션 (Cambridge)
안정적인 비즈니스 45년 운영
(Well established business, 45years)
소유주 은퇴
근무자 : Owner + 3 Part times
매매가격 : \$160,000

T. 617-549-5920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781-648-0584

'꽃청춘' 워너 편 행선지는 호주

'강식당'도 준비 중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 tvN '신서유기 외전'의 첫 타자 '꽃보다 청춘 워너편'의 행선지가 결정됐다.

지난 8월 종영한 '신서유기4'에서 '송가락' 송민호의 활약으로 결정된 뜻밖의 외전인 tvN '신서유기 외전'은 올 연말 첫 방송된다. '신서유기 외전'이라는 이름 아래 먼저 송민호를 비롯한 워너가 함께하는 '꽃보다 청춘 워너편'이 차례로 방송되고 이어 강호동과 '신서유기' 멤버들이 함께하는 '강식당'이 방송될 예정이다.

'신서유기 외전'의 첫 타자인 '꽃보다 청춘 워너편'에 출연하는 워너 멤버들은 이날 인천공항을 통해 호주로 출국했다. 물레 데려가려는 제작진과 속지 않으려는 워너 멤버들의 물밑 줄다리기가 대단했다는 후문이다. 몇달간 배낭을 메고 다녔을 정도로 철저히 준비한 워너를 어떻게 속였



을지는 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신서유기 외전'의 제작진은 "매너저도 안 믿을 정도로 모든 것을 의심한 워너를 데려가는 과정부터가 시청자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할 것"이라며 "강식당

'역시 철저하게 준비해 '신서유기' 팬들에게 최고의 웃음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기대감을 당부했다.

한편 '신서유기 외전'은 올 연말 방송된다.

aluemchang@news1.kr

'알바트로스' 안정환, 동갑내기 추성훈에 "너 나 좋아하니?"

(서울=뉴스1스타) 윤정미 기자 = 안정환과 추성훈이 대게 아르바이트에 도전했다.

11일 tvN '알바트로스'에선 안정환과 추성훈이 주문진 대게 알바에 나섰다. 두 사람은 배로 싣고 온 대게를 실어서 옮기는 알바에 도전했다.

게를 실은 배가 부듯가에 정박하면 게를 옮기는 작업을 했다. 이어 작업복을 입고 차가운 수조에 들어가 죽은 게와 산 게를 골라내는 작업에 도전했다. 안정환은 차가운 수조

에 들어가기 주저했고 미리 들어간 추성훈은 "들어와"라고 외쳤다.

이어 수조에서 나갈 때 추성훈은 바로 앞에서 동갑내기 안정환을 기다렸다. 이에 안정환은 자신의 옆에서 떨어지지 않는 추성훈에게 "너 나 좋아하니?"라고 물어 웃음을 자아냈다.

이날 추성훈은 안정환에 대해 "내 친구 정환이는 편하고 믿을가는 동갑내기 친구다"라고 애정을 드러냈다.

galaxy98@news1.kr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o@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OTK 김원태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MA & NY) • NCARB • CDT • LEED AP
MA REALTOR® • MA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건축 & 시공

© 2014 OTK DeCon Group

1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매사추세츠와 뉴욕 건축사 전문 라이선스 보유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기획 · 설계 · 허가 · 시공 · 관리
각종 건물 신축 · 증축 · 개축
We can Design Build Buy Sell your home!
상용건물 · 콘도 · 주택 · 사업체 매매 도와드립니다
otk212@gmail.com 617.620.8242

Newstar JBL Realty in Boston



잘 하겠습니다!



- 미주 최대 한인 부동산
-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뉴스타 JBL부동산

신뢰와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이 도와 드립니다

주택매매 전문, 상용건물, 투자, 사업체, 아파트렌트, 부동산 개발 투자 상담 환영



뉴스타 JBL 부동산과 함께 하실 새로운 가족을 찾습니다.

SOLD

1. 퀸지 마리나 베이 고급 1 B/R 콘도 **SOLD**
2. Condominium in Billerica 3 B/R, 2 Bath, \$280,000 **SOLD**
3. Drop Shop in Somerville \$30,000 **SOLD**
4. Condominium in Andover, 3 B/R, 2 1/2 Bath **SOLD**
5. Nail salon in Dedham **SOLD**

LISTING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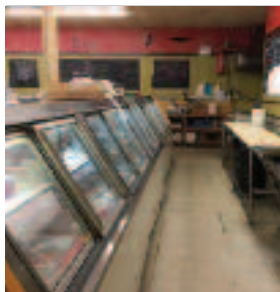


새 바람 Waltham, 6 B/R, 3 Bath Two Family House, 좋은 투자용 주택
ASKING \$798,000



Signle Family in Quincy, Guest House에 적합한 4 B/R, 2 1/2 Bath
ASKING \$640,000

LISTINGS



Brockton에 있는 30년된 "Meat Market" Lottery, Cigarettes, Grocery
ASKING \$160,000



Drop shop in Newton Location! Location!
ASKING \$70,000



보스턴 남부지역 성황리 영업중 풀 풀렌트 세탁소
ASKING \$160,000



로드 아일랜드 성업중인 스시 식당 주인 리타이어
ASKING \$280,000



Boston동북부 바닷가 부촌에 위치한 이태리 커피 및 샌드위치 Cafe & Bakery Owner 이주, 좋은 가격
ASKING \$45,000

Direct:
Jay B. Lee 781.654.5281
jayblee@newstarrealty.com
19 Needham St. Newton, MA 02461

TEL. 617.467.5218
FAX. 617.467.5273
www.newstarrealty.com

전지역 무료 배송

명품안마의자 · 건강기기 종합전시장

INADA Panasonic POSITIVE POSTURE FUJIIRYŌKI



INADA DREAMWAVE
\$265 /월
36개월 무이자



INADA NEST
\$7,900
\$6,000
24개월 무이자



INADA FLEX 3S
\$7,500
\$4,300
12개월 무이자



PANASONIC EP 30007
\$3,500



PANASONIC EP MA73
\$223 /월
36개월 무이자

가능이 한단계 UPGRADE된
2017년 파나소닉 MA 73



POSITIVE POSTURE BRIO
\$6,900
\$4,999
24개월 무이자



FUJI FJ5000
\$100 /월
60개월 무이자

김치냉장고 초대박 세일

★★★ 가을맞이 스페셜 이벤트 ★★★
스탠드 김치냉장고 구입시 냉동고 무료증정

김치냉장고 전문 수리기술자 상주
NY, NJ, PA 무료 딜리버리

Samsung zipel

330L 스탠드 \$2,899 + 냉동고 무료증정

220L 구입시 \$1,350 + 무선마루 청소기

126L 구입시 \$750

330L 220L 126L

뎀채° DAEWOO Klasse

418L 스탠드 \$2,999 + 공기청정기

330L 스탠드 구입시 소형냉동고 무료증정

180L 구입시 \$1,150

418L 180L 330L

전자파없는 온수매트
건강한 따뜻함을 만나세요~

내·일·을·브·다
novita
노비타 온수매트

SteamBoy
스팀보이 온수매트

LG styler Steam Clothing Care



걸어만 봐도 새 옷처럼~
집에서도 스타일 클리닝

\$1,900
\$1,499

HiTRONS 보스톤 781-862-6867 1666 Massachusetts Ave. Lexington, MA 02420 www.hitrons.com

HiTRONS 하이트론스 1 Remsen Pl, Ridgefield NJ 07657
201-941-0024 (리저펠드 한양을 내)

베델전자 뉴욕지점 150-24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
718-445-2005 (크리아 빌리지 1층)

베델전자 한남체인점 1475 Bergen Blvd, Fort Lee NJ 07024
1-888-809-1167 (한남체인 공내)

HiTRONS 필라델피아 1222 Welsh Rd, Unit B5, North Wales PA 19454
215-368-1070 (아씨 플라자 필라지점)

HiTRONS 메릴랜드 8801 Baltimore National Pike, Ellicott City, MD 21043
410-465-7125 (롯데 플라자 마켓 - 엘러콧시티)

HiTRONS Mattress 470 Broad Ave (연천도넛 파상열) Ridgefield NJ 07657
201-941-0010

신영의 **세상 스케치**

617회

40년 만에 만난 '초등 친구'들과 함께...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반갑다, 친구야! ^ ^"
경기 북부 시골 작은 마을에 살던 '촌 아이들'이 모였다. 만나자마자 화들짝 웃으며 서로를 반갑게 안아주는 해맑은 친구들이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지 40년이 되어서야 어릴 적 친구들을 만났다. 한 친구는 '시카고'에 살고 나는 '보스톤'에 살고 다른 한 친구는 '노스캐롤라이나'에 살고 있다. 미국에 사는 세 친구가 이번 가을에 모두 한국 방문 중이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온 친구는 다른 약속으로 오질 못해 못내 서운했다. 참으로 반가운 얼굴들 어른이 되어서 만난 모습이지만, 그래도 조금씩 어릴 적 귀여운 얼굴이 남아 있어서로 알아볼 수 있었다.
"왜 이렇게 살이 많이 찼니?"
"나 주름이 많지?"
등등~ 그 어떤 물음이나 질문도 어색하지 않은 그런 우리들이다. 그렇게 깔깔거리며 화들짝 거리던 '초등학교 아이들'로 돌아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40년 세월이 무색하리만치 어린 시절로 돌아가니 정말 아이처럼 천진스럽고 해맑은 영혼이 되고 말았다. 모두의 공통분모가 있으니 더 많은 것들을 읽어낼 일도 찾아낼 일도 없으니 참으로 편안해

서 좋았다. 이래서 다른 이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초등 친구들이 좋다고들 하는가 싶었다.
이렇게 서로 어릴 적 기억을 한둘 떠올리며 이야기는 무르익어갔다.
"혜숙아, 너는 착하고 눈물이 참 많았던 아이였어!"
"영선아, 너는 키가 작고 조용한 아이였는데..."
"영자야, 너는 아무지고 공부 잘했던 우리 반 부반장이었지!"
"병란아, 너는 키가 크고 눈이 큰 녀석하고 점잖은 아이였어!"
"남예야, 너는 소리 없이 조용하고 자기 일을 하는 아이였지!"
"우연아, 너는 우리 반에서 참 예쁘고 귀여운 아이였어!"
친구들이 예쁘고 귀여웠던 우연이는 바로 나였다. 이 우연이란 이름에는 사연이 있었다.
1971년도에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했으니 졸업은 1977년 2월쯤 했다는 어렵풋한 생각이 든다. 이 친구들과 인연이 없었을 듯싶은 '우연'의 내 이름에는 '운명의 인연'이 이미 들

어 있었다. 시골 마을에 몇 안 되는 친구들이 초등학교 입학 통지서를 받아 좋아했던 시절에 내게는 그 통지서가 전달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 이유는 한 살 터울 위의 오빠가 있었는데 낱자마자 잃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오빠를 잃고서 우연히 생겼다고 엄마 해산관을 오셨던 큰이모가 내 이름을 '우연'이라고 지어 주셨다고 들었었다. 그리고 호적에 다른 이름을 올리고 집에서는 '우연'이라 불리었다.
물론, 초등학교 6년을 '우연'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학교를 다녔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 시절 시골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아니던가. 그렇다, 한 살 터울의 오빠를 잃고 걱정이 되셨을 부모님께서 그해에 호적에 올리지 않고 한 해 늦춰 올리셨던 것이다. 그래서 통지서를 받지 못해 함께 뛰어놀던 동네 친구들은 가슴에 하얀 콧수건을 옷핀으로 꿰고 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 나는 입학 통지서가 없어 학교에 못 가니 그 답답한 가슴을 누가 알기나 했을까 말이다. 며칠을 울고 매달리니 엄마가 내 손을 잡고 교장 선생님을 찾았던 기억이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 집에서는 부모님과 형제·자매들도 모두 '우연'이란 이름으로

불러준다. 물론, 중학교에 입학해서 두 달은 바뀐 이름으로 많이 혼동됐던 기억이 있다. 40년이란 세월이 흘렀어도 여전히 '우연'이란 이름으로 불러주는 친구들이 바로 초등학교 친구들이다. 친구 하나는 시카고에 살고 있고 남편이 그곳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또한 친구는 노스캐롤라이나에 사는데 비즈니스를 한다고 한다. 40년 만에 처음 만난 한국에 있는 친구들도 간호사가 있고 스킨케어 강사 그리고 청바지 공장을 크게 하는 친구와 직장에 다니는 친구가 있었다.
모두가 각자의 길에서 열심히 사는 모습이 참으로 좋았다. 친구들과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누다 보니 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 선생님 얘기를 하게 되었다. 5, 6학년 담임을 하셨는데 우리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수업을 해주셨던 기억이다. 그 어린 시절에 교실 밖에서의 수업을 많이 해주셨으며 자연과 함께하는 법과 철학을 그때부터 일러주셨다는 생각을 우리는 서로 나누게 된 것이다. 그 누구보다도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셨던 '우리'의 선생님'이셨다. 그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 도봉산 산행을 하기로 했다. 선생님과 40년 만의 해후를 기다리며...



한담객설閑談客說: 미쳐야 미친다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직 궁금증만 충만하다. 제가 아는 것만 말하고 제가 잘 할 수 있는 것만 자랑스러워 한다. 그러나, 과학자가 절대 미친건 아니다. 미친척 하는 것도 아니다. 연구할 적에만 미친다. 과학자는 궁금증과 씨름하고 대화하며 소통하기 때문이다. 함부로 말하는 부류는 정치인들이 아닌가 한다.
'Mad man'. 트럼프대통령이 구사한다는 외교 전략이다. 미친척 한다는 말일게다. 하지만, 아무런 계산없이 함부로 내뱉는 말은 아니니라. 정교하게 계산된 정치외교 전략이라 믿는다. 미국대통령이 미쳤다면 너무 황당하다.
독일 메르켈 총리는 이론 물리학 박사이다. 그에 대한 평이 간결하고 칭찬이 극에 달했다. '신중하고 절제 되어있다. 영리하며 끈기있고, 미래에 닥칠 일을 따져, 결과를 예상하고 행동을 결정한다. 다양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위험요소를 저울질 하며, 정보에 입각해 정책방향을 선택한다.' 과학을 공부했기 때문일까?

그렇지도 모른다. 그가 'mad man' 이 아니라 건 누구나 안다. 메르켈 총리는 이제 독일을 넘어 세계의 지도자 반열에 들어섰다.
일본 하이쿠중 하나. '이 미친 세상에서 미치지 않으려다 미쳐버렸네.' 세상은 미친게 아니라 정신없이 움직이며 돈다. 그나마 연구실에서 늦은 밤을 밝히며 정신없이 연구하는 과학자와 공학자들이 있다. 하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이 어디 과학자나 공학자 뿐이겠는가. 세상은 미치려(及)하는 사람이 미친(狂) 사람보다 많다. 살 만한 세상이다. 미쳐야 미친다는 말은 여전히 유효하다.
앞서 말했던 선배가 어려움에 처했다. 선배가 되뇌었다. '그냥, 의과대학을 나와 의사나 할 걸'. '내가 그때 잠깐 미쳤더랬나 보다.'
내가 미친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사도행전 26:25)

'미쳐야 미친다.' 한국책 제목이다. 불광불급不狂不及. 몰두하지 않으면 바라는 바에 다다르지 못한다는 말이다.
내게 선배 한사람이 있다. 한국 대학에서 화공학을 공부했다. 그가 화공학을 공부한데에는 사연이 있다. 그는 먼저 의예과에 합격했다. 이어 입주가정교사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학부형이 말하더라. '우수한 학생은 화공학을 공부해야 한다.' 가르치는 학생 아버지가 그 대학 화공과를 나왔던 모양이다. 당시, 중화학공업 육성이라 했다. 화공과가 커트라인이 가장 높았고, 대단한 학생들이 몰렸다. 선

배는 미련없이 의예과를 접어치웠다. 재수를 거쳐 화공과에 다시 입학했고, 졸업했다. 한참 세월이 지난후, 선배는 화공학으로 미친듯이 박사공부 중이었다.
'Mad scientist'. 미친 과학자. 반창고 붙인 안경에, 부수수한 머리, 그리고 꾀죄죄한 실험복. 만화에 나오는 과학자 모습이다. 터지는 화학물질만 만드는 괴짜이고, 사회생활 부적응자이다. 화학으로 먹고 사는 나도 이런 만화같은 모습에 크게 패념치 않는다. 실제 그렇다.
미친 과학자도 함부로 말하지는 않는다. 함부로 묻지도 않고, 함부로 대답하지도 않는다. 오

Prime Motor Group

A new kind of car buying experience.



2018 Hyundai Elantra SE

Keynote Features: 17-speaker Harman International Premium Sound, Remote Keyless Entry w/ Alarm, Steering Wheel Mounted Audio & Cruise Controls

TND, Automatic

Stock #H012027

Lease	Purchase	Finance
\$99/mo.	\$14,080	0% APR
• 36-month lease • 12,000 miles per year • \$1,000 down payment	MSRP.....\$15,000 Rebates.....\$4,000 Prime Discount.....\$1,100	Available up to 60 months for qualified customers.

2017 Hyundai Sonata 2.4L

Keynote Features: Bluetooth, Sirius XM, FWD, Automatic

Stock #H012412

Lease	Purchase	Finance
\$99/mo.	\$15,560	0% APR
• 36-month lease • 12,000 miles per year • \$1,000 down payment	MSRP.....\$20,960 Rebates.....\$3,000 Prime Discount.....\$2,000	Available up to 60 months for qualified customers.

2017 Hyundai Elantra Eco

Keynote Features: Heated Front Seats, Apple CarPlay™ & Android Auto™, 8-speaker Harman International Premium Sound, 7" Touchscreen w/ 4 Speakers, 8-Button Hands-Free Phone System, Proximity Key w/ Push-Button Start, Hands-Free Smart Thru

TND, Automatic

Stock #H011999

Lease	Purchase	Finance
\$99/mo.	\$16,890	0% APR
• 36-month lease • 12,000 miles per year • \$1,000 down payment	MSRP.....\$21,700 Rebates.....\$3,400 Prime Discount.....\$1,500	Available up to 60 months for qualified customers.

2018 Hyundai Sonata SE

Keynote Features: Apple CarPlay™ & Android Auto™, 8-speaker Harman International Premium Sound, Blind Spot Detection System w/ Rear Cross-Traffic Alert

TND, Automatic

Stock #H012400

Lease	Purchase	Finance
\$99/mo.	\$18,940	0% APR
• 36-month lease • 12,000 miles per year • \$1,000 down payment	MSRP.....\$23,140 Rebates.....\$2,500 Prime Discount.....\$1,700	Available up to 60 months for qualified customers w/ 8000 Speed Mirrors (Active)

2017 Hyundai Tucson SE

Keynote Features: Overhead Storage Bin, Mirror, Search Console, Touchscreen Radio, Rear View Camera

TND, Automatic

Stock #H012490

Lease	Purchase	Finance
\$99/mo.	\$19,920	0% APR
• 36-month lease • 12,000 miles per year • \$1,000 down payment	MSRP.....\$25,470 Rebates.....\$4,150 Prime Discount.....\$1,500	Available up to 60 months for qualified customers.

2017 Hyundai Tucson Sport

Keynote Features: 17" Alloy Wheels, Chrome Triple Bar Door Buckle, 10-speaker Harman International Premium Sound, 7" Touchscreen w/ 4 Speakers, 8-Button Hands-Free Phone System, Proximity Key w/ Push-Button Start, Hands-Free Smart Thru

TND, Automatic

Stock #H012005

Lease	Purchase	Finance
\$99/mo.	\$21,665	0% APR
• 36-month lease • 12,000 miles per year • \$1,000 down payment	MSRP.....\$28,600 Rebates.....\$3,400 Prime Discount.....\$3,600	Available up to 60 months for qualified customers.

2017 Hyundai Santa Fe Sport

Keynote Features: 8-speaker Harman International Premium Sound, Apple CarPlay™ & Android Auto™, 8-speaker Harman International Premium Sound, 7" Touchscreen w/ 4 Speakers, 8-Button Hands-Free Phone System, Proximity Key w/ Push-Button Start, Hands-Free Smart Thru

TND, Automatic

Stock #H012271

Lease	Purchase	Finance
\$99/mo.	\$22,540	0.9% APR
• 36-month lease • 12,000 miles per year • \$1,000 down payment	MSRP.....\$30,340 Rebates.....\$4,500 Prime Discount.....\$3,300	Available up to 60 months for qualified customers w/ 8000 Speed Mirrors (Active)

2017 Hyundai Santa Fe SE

Keynote Features: 8-speaker Harman International Premium Sound, Apple CarPlay™ & Android Auto™, 8-speaker Harman International Premium Sound, 7" Touchscreen w/ 4 Speakers, 8-Button Hands-Free Phone System, Proximity Key w/ Push-Button Start, Hands-Free Smart Thru

TND, Automatic

Stock #H012172

Lease	Purchase	Finance
\$99/mo.	\$27,765	0.9% APR
• 36-month lease • 12,000 miles per year • \$1,000 down payment	MSRP.....\$34,640 Rebates.....\$4,500 Prime Discount.....\$2,600	Available up to 60 months for qualified customers.

한국인 딜러

Earl Ko 고열
Authorized Hyundai Dealer
617.755.6941

"Leases exclude tax, title, acquisition fee. 10k or 12k miles per year. *All qualified rebates to dealer. **Must take delivery same day from dealer stock. PURCHASE OFFER – Price includes Valued Owner or Competitive Owner Coupon, Military Rebate, College Grad Cash, Flex Coupon (1) Prime Cash Discount available to all customers. (2) Retail bonus cash available on select Hyundai models purchased from dealer stock and financed through HMLT by 10/31/2017. Customers who participate in a Special Lease or Low APR program through Hyundai Motor Finance (HMF) do not qualify for Retail Bonus Cash. *** With approved credit only. FINANCE: Available to qualified applicants, not all will qualify.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All offers expire 10/31/2017."

정준기 원장 교육 컬럼

[필립스 아카데미(Phillips Academy) II]

정준기 원장 (보스톤 교육원)

Tel: 339-234-5255 / 5256 / 5257

Fax: 339-234-5258

Email: bostoneducation@hotmail.com

Web: bostonedu.org



〈아카데미 보조 프로그램〉

ASC(Academic Skills Center)에는 개별 학생들이 아카데미 분야에서 어려움을 없이 전체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과목을 올바르게 이수할 수 있도록 특별 지도해 주고 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Peer tutoring, Conference Period 등 이외의 시간과 기간을 활용,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분야별 특정 장소에서 지도를 받을 수 있다. 현재 Math Study Center, Science, Writing, Computer, PACC Lobby resource, Language Learning, Language tutors 등의 프로그램들이 지원되고 있다.

〈해외 교환학생 프로그램〉

필립스 앤도버는 SYA(School Year Abroad) 프로그램을 최초로 준비, 시행한 학교 중의 하나이다. 매년 적지않은 학생들이 학기 중이나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여러 국가에서 학점 이수 및 외국어 습득에 참여하고 있다. 물론 본 프로그램에는 사전 입학허가 된 학생만이 참여 가능하다. 또한

Oxbow School은 한 학기 동안만 캘리포니아 주 나팔 벨리지역에서 미술과 다른 아카데미 과목들을 공부하는 프로그램으로써, 대학 강의 형식의 수업 진행과 환경이 참여 학생들에게 주어진다. 11,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최대 2명의 학생이 선발되어 참가할 수 있는 일종의 엘리트 프로그램이다.

〈스포츠〉

필립스 아카데미의 학생들은 전체 50개 이상의 스포츠 종목 중에서 Intramural, JV, Varsity 레벨에서 약 65개의 학교 스포츠팀에 소속되어 활동을 하고 있다. 9, 10학년 학생들은 일정 레벨에서 운동을 해야 하지만, 고학년들에게 있어 스포츠 활동은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운동에 흥미가 없는 학생들은 참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ISL 리그에 소속되어 있지 않아서 한 학생이 매 시즌별 각기 다른 종목의 운동을 해야 한다는 규칙을 따를 필요도 없다. 예를 들어, 스쿼시는 일반적으로 겨울 운동이지만, 가을

과 봄에도 Intramural 운동으로 계속할 수 있다는 점이 타학교와 비교된다. 또한 많은 우수한 운동 선수들을 리쿠르트해 오기 때문에 Varsity 레벨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의 무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시즌별 스포츠 종목들을 살펴보자

(가을)

크로스 컨트리(Cross Country), 필드하키(Field Hockey), 미식 축구(Football), 축구(Soccer), 배구(Volleyball), 수구(Water Polo)

(겨울)

농구(Basketball), 하키(Hockey), 실내육상(Indoor Track), 스키(Skiing), 스쿼시(Squash), 수영(Swimming), 레슬링(Wrestling)

(봄)

야구(Baseball), 조정(Crew), 자전거(Cycling), 골프(Golf), 라크로스(Lacrosse), 테니스(Tennis), 트랙&필드(Track & Field), 배구(Volleyball), 프리

즈비(Ultimate Frisbee)

〈유명 동문〉

오랜 역사와 명성으로 과학자, 교육자, 발명가, 예술가, 의사, 노벨상 수상자, 대학 총장, 대통령 등 무수한 인사를 배출한 명실상부한 미국 최고의 고등학교라 말할 수 있다. 유명인사 모두를 나열할 수는 없으므로 관심 있는 분은 학교 웹사이트나 책자를 참고하기 바란다.

Samuel Morse(전신[Telegraph] 발명가), George C. Washington(조지 워싱턴 조카), Frederick Olmsted(뉴욕 센트럴 파크 디자이너), Joseph H. Neesima(동경대 설립자), Walter Willcox(경제학자), Adam Gimbel(전 Saks Fifth Avenue 회장), Humphrey Bogart(배우, 아카데미 수상자), William Vickrey(노벨 경제학상 수상), William Knowles(노벨 화학상 수상), George Bush(전 미 대통령), George W. Bush(전 미 대통령), Christopher Hughes(facebook 공동 설립자) 등.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199
화랑세기(花郎世紀), 7세 풍월주(風月主) 설화랑(薛花郎)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이어지는 화랑세기, [설원랑의 낭도들은 향기를 잘하고 청류(淸遊)를 즐겼다. 그러므로 국인들은 문도(文徒)를 가리켜 호국선이라 했고, 설도(薛徒)를 가리켜 운상인이라 했다. 골품이 있는 사람들은 설도를 많이 따랐고, 초택(草澤)의 사람들은 문도를 많이 따랐다. 서로 의(義)를 같고 닦음을 주로 했다.

진지대왕은 미실 때문에 왕위에 올랐는데 색을 밝혀 방탕했다. 사도태후가 걱정을 했다. 이에 미실과 폐위할 것을 의논했다. 노리부공으로 하여금 행하도록 했다. 노리부공은 사도의 형이다.

미실의 남편인 세종과 더불어 장차 대사를 일으키려 할 때, 문노의 도(徒)가 불복할까 염려하여 태후의 명령으로 두개의 도(徒)를 합쳐 하나로 만들었다. 다시 미실을 받들어 원화로 삼고 세종을 상선(上仙), 문노를 아선(亞仙), 설원랑과 비보랑을 좌우봉사(佐奉)화랑, 미생을 전방봉사(前防)화랑으로 삼아 진정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문노의 도(徒)는 미천한 사람으로 높은 관직에 발탁되는 사람이 많았다. 초택(草澤)의 사람들과 투항하고 귀순한 무리는 출세하는 문(門)으로 삼았기에, 문노를 신과 같이 받들었다(而奉文驚如神.)

진지대왕은 신라의 제25대 왕이다. 진흥왕과 사도태후의 차남으로 본명은 김금륜(金金輪

이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는 '일작 사륜(舍輪)이라고도 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유사한 한자의 표기 오류일 가능성이 있다. 화랑세기에는 사륜(舍輪)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진흥왕은 아들들의 이름을 전문성왕의 이름에 따라 지었다. 전문성왕은 고대 인도의 사상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군주상으로, 무력이 아닌 정법으로 전 세계를 통치하며 군주에게 요구되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는 왕이다. 진흥왕은 그 완벽한 모델이 인도 마우리아 왕조의 아소카 왕이라고 봤다. 전문성왕에는 네 종류가 있는데, 그들이 금륜(金輪王), 은륜(銀輪王), 동륜(銅輪王), 그리고 철륜(鐵輪王)이다. 고대 인도의 세계관은 세상은 네 개의 섬/대륙으로 되어있는데 철륜은 철의 윤보/수레바퀴로 한 주를, 동륜은 동의 윤보로 두 주를, 은륜은 은의 윤보로 세 주를, 금륜은 금의 윤보로 네 주를, 즉 온 세상을 다 다스린다고 봤다. 그래서 진흥왕은 적자들의 이름을 동륜과 사륜(철륜, 금륜)으로 지었다.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는 없지만, 화랑세기에는 진흥왕의 딸 은륜공주가 등장한다. 진흥왕은 자신의 자식들이 온 세상을 정법으로 다스리기를 염원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진흥왕의 장손인 백정과 그의 형제들 이름은 석가의 부모와 형제들의 이름과 동일하게 불려주었지만 신라에서는 부처가 태어날 운명이 아니었는지 진평왕 김백정은 아들이 없다. 다만 공주만 둘(셋 또는 넷)을 두었다. 그들이 선

덕여왕과 천명공주(그리고 선화공주, 또는 천화공주)이다. 그리고 진평왕 다음으로 선덕여왕이 제27대 왕으로 오르고 후사가 없자, 다음 왕위는 사촌인 진덕여왕에게로 갔다. 그것은 성골의 핏줄로 왕위를 잇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진덕 역시 후사가 없자, 차기 왕은 성골의 첫왕 김춘추가 등극하였다. 그가 제29대 태종 무열왕이다. 그런데 의문시 되는 점은 김춘추의 아버지는 김용춘이고, 어머니는 천명공주 성골이 아니다. 기록은 없는데 아마도 진지왕이 폐위될 당시 죽강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위의 화랑세기 인용문에 보면 문노의 기세가 승천하는 장면을 볼 수 있다. "문노를 신과 같이 받들었다." 신국 신라에는 많은 현인들이 있었는데, 문노도 그 중의 한명이었다. 문노의 격검술은 신기에 달했다. 그래서 그는 많은 무공을 세웠으며 또한 그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은 점점 늘어만 갔다. 특히 문노의 무리는 6세 풍월주 세종을 따라 다니며 혁혁한 전공을 세웠다. 하지만 그는 그에 합당한 지위를 얻지 못함에 불만을 품었고, 화랑의 풍월주가 바뀌는 틈새를 노려 자립하였다. 즉 7세 풍월주 설원랑(설화랑)의 조직에서 낭도를 하지 않겠다면서 홀로 일문을 세워 호국선이라 칭하며 설화랑과 호각지세를 다투었다. 이에 미실과 사도태후는 '진지왕 폐위' 거사를 앞두고 화

랑의 분열과 문노의 불복을 염려하여 화랑의 조직을 재정비하였다. 그리고 미실 자신이 원화에 앞으면서 실질적인 화랑의 수장이 되었고, 남편이자 6세 풍월주 세종을 상선으로, 문노를 설화랑보다 높은 아선에 앉히면서 문노의 세력을 품안으로 받아드렸다. 이렇게 화랑의 무리를 재편하여 자신의 손아귀에 넣은 미실, 사도태후는 오라비 노리부공 하여금 정계를 장악하게한 다음 미실과 함께 진지왕을 폐위하였다. 그리고 노리부공 상대등이 되었으며, 화랑의 우두머리들은 그후 서열에 따라 풍월주 자리에 오르면서 화랑을 이끌었다. 미실의 도움과 지원으로 7세 풍월주를 지낸 설화랑의 후임은 문노가 올랐고, 그 다음 9세 풍월주는 원화 미실 밑에서 우봉사(右奉)화랑으로 있었던 비보랑이, 10세 풍월주는 전방봉사(前防)화랑이었던 미실의 동생 미생이 이어 받았다. 이렇게 정변에 성공한 사도태후와 미실의 일파는 정계와 화랑을 완전히 장악하고 12살의 어린 김백정을 임금으로 세우고 권력을 향유했다. 김백정이 26대 진평왕이다. 579년에 일어난 사건이다. 할머니 사도태후가 584년까지 섭정을 하였다(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는 진평왕의 출생연도가 없는데, 화랑세기에는 567년생으로 기록되어 있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삼국사절요, 화랑세기 - 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 - 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Korean Cultural Society of Boston and Foundation for Chinese Performing Arts
 present **An Evening with Parker Quartet**
 with Jung-Ja Kim



특별 출연

김정자 피아노

찰스 클레멘츠 더블베이스

그래미상 수상에 빛나는 파커 퀼텟

“무엇인가 아주 특별한”

— 뉴욕타임즈

“강렬하고 기교가 뛰어나며 자신감 넘치는”

— 보스턴 글로브

“놀라운 기교와 상상력이 풍부한 표현”

— 워싱턴포스트

Mozart

String Quartet No. 22 in B-flat major, K.589

Prokofiev

String Quartet No.2 in F major, Op. 92

Schubert

Piano Quintet in A major, D. 667 “송어”

2017년 11월 4일 토요일 저녁 8시 | 뉴잉글랜드 컨서바토리 조던 홀 (30 Gainsborough St. Boston, MA)

티켓 구매 및 공연 정보: www.kcsboston.org | www.chineseperformingarts.net 전화 문의: (781) 223-4411

공동 주최:



Korean Cultural Society of Boston
한미예술협회



Foundation for Chinese Performing Arts
중국공연예술재단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미국공인회계사
(미국)MW LEE, CPA P.C. 대표
(한국)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본부장
Boston Tel. 617-455-8073 Fax. 617-249-2088
Seoul Tel. 013-0533-9910
mwlee@kicpa.or.kr 또는 tomwlee1125@gmail.com

양도소득세 (3)

- 한국으로 귀국하는데, 미국의 집은 언제 파는 것이 좋을까요?

취업목적으로 배우자, 두자녀와 함께 미국에 온 김태백씨는 한국으로 귀국해야 해 미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 2년 이상 살면 \$250,000(부부합산 신고한 경우 \$500,000)을 이익에서 공제해 준다는데, 귀국한 후에 팔아도 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미국에 거주하다 한국으로 귀국하는 사람 중 많은 분이 미국의 주택을 처분할 지 아니면 임대할 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하더라도 매매하는데 시일이 걸려 귀국후에 계약이 성사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은 한국에 돌아간 후, 미국에 있는 '주된 주거용주택(Main Home)' 이 팔리면 한국과 미국에서 어떻게 과세되는지 살펴보기로 합니다.

1. 미국에서의 과세

주택은 자본재산(Capital Assets)이므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그런데 일정요건을 갖춘 Main Home을 양도하면, 이익에서 최대 \$250,000 (부부가 합산신고하는 경우 \$500,000)을 차감해 줍니다. 여기서 'Main Home' 이란 납세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로 양도일로부터 지난 5년의 기간 중 2년 이상 소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말합니다.

비거주자와 Main Home

이 규정은 세법상 미국의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는 세금 신고 시 부부합산신고 (Married Filing Jointly)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250,000입니다. 물론 부부가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했다면 (Owned Jointly), 각각 최대 \$250,000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합하면 \$500,000을 공제받게 됩니다.

위의 내용을 김태백씨에게 적용하면, 김태백씨가 귀국해 한국의 거주자(즉, 미국의 비거주자)가 된 후 미국의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그 주택이 Main Home에 해당하면 최대 \$250,000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잠깐! 그런데 어떻게 미국에 있는 주택이 한국에 거주 중인 김태백씨의 Main Home이 될 수 있나요?

자, 다시 Main Home의 정의를 상기해 봅시다. Main Home이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납세자의 주된 거주장소로서 5년의 기간 중 2년의 소유요건과 2년의 거주 요건을 갖춘 주택을 말합니다. 따라서 김태백씨가 이미 미국을 떠나 양도일 현재 미국의 주택에서 살고 있지 않더라도 양도일로부터 과거 5년의 기간중 2년을 소유하고 2년을 거주했다면 Main Home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김태백씨가 미국 출국 후 3년이 되는 날까지는 미국의 집이 Main Home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김태백씨는 미국 출국 후 3년 이내

에 미국의 주택을 팔면 Main Home에 대한 공제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김태백씨는 부부합산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250,000입니다.

외국소재 주택과 Main Home

참고로, 'Main Home' 규정은 주택이 어느나라에 있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Main Home의 요건을 갖춘 한국의 주택을 양도하면, 주택의 양도차익에서 \$250,000(또는 \$500,000)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한국에서의 과세

다음으로 김태백씨가 한국의 거주자가 된 후 미국의 주택을 양도하면 한국에 세금을 내야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세법상 한국의 거주자는 전세계의 모든 소득을 한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국하여 한국의 거주자가 된 김태백씨는 미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한국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때 한·미간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미국에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해 줍니다.

해외 자산의 양도소득

그런데 한국의 세법에는 해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5년간 계속하여 한국에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를 바꿔 말하면, 세법상 비거주자였다가 거주자가 된 사람은 거주자가 된 후 5년 이내에 해외의 자산을 팔면 한국에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다년간 미국의 거주자(즉, 한국의 비거주자)였다가 한국의 거주자가 된 김태백씨도 귀국한 후 5년 이내에 미국의 주택을 팔면 한국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3.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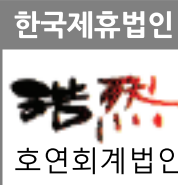
위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미국의 Main Home에 대한 혜택 및 한국의 해외재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에 있는 주택의 양도시기가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주택의 양도시기와 세제혜택여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시기	미국의 Main Home 혜택	한국의 해외재산 비과세
귀국후 3년내	가능	가능
3년~5년	불가능	가능
5년후	불가능	불가능

M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tomwlee1125@gmail.com
1318 Beacon St. #12(right)
Brookline, MA 02446



제18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보스톤협의회출범회의



함께 걷는 평화의 길
함께 여는 통일의 문

일시 : 2017년 10월 19일 (목), 오후 6:00~9:00
장소 : CROWNE PLAZA
1360 Worcester St, Natick, MA 01760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스톤협의회 회장 윤미자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407)

다우 존스 지수 1,000,000

투자의 귀재라 불리는 워런 버핏이 100년 기업 포브스(Forbes) 잡지 표지에 나왔습니다. 워런 버핏은 앞으로 100년 후 다우 존스 지수는 1,000,000을 기록(Warren Buffet says the Dow is going over one million, Ben Eisen, Sep 20, 2017, WSJ)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다우 존스는 22,500으로 올해만 42번이나 새로운 기록을 나타냈습니다.

다우 지수 100만은 허황된 예측이 아닙니다. 과거 100년 다우 존스는 평균 5.3%씩 성장했는데 그보다 훨씬 보수적으로 3.9%씩만 성장한다 해도 100년 후 다우 지수가 100만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워런 버핏의 언급은 '미국 500대 모든 부자는 미래에 대한 기대가 매우 낙관적'이라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주식시장의 수익 총합계는 무려 \$2 trillion이 됩니다. 이 많은 돈을 나누어 가진 사람은 주식시장에 투자한 사람들뿐입니다. 2009년 주식시장이 폭락하기 전에 투자했던 투자자가 65%였는데

현재는 54%만이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 투자한 56%도 주식시장에 투자한 액수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상위 10%가 주식시장에 91%를 소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90% 인구가 주식시장의 나머지 9%에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주식시장이 상승하면 주식시장에 투자한 부자들만이 이러한 혜택을 받습니다. 부자가 더 큰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이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마음이 비관적으로 되기도 쉽습니다. 일을 열심히 해도 아이들과 생활하기가 힘이 듭니다. 투자할 돈도 없고 있다고 해도 투자하지를 못합니다. 투자하는 방법도 모르지만, 주식시장과 미래에 대해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하지 않는 사람들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만은 없습니다. 제대로 하는 투자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금융업계(Wall Street)는 불법만 아닌 모든 방법을 이용해서 돈을 벌

고자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평생 보장연금'이라고 선전하며 파는 어뉴티(Annuity), 높은 수입을 받을 수 있다는 '거래되지 않는 부동산(Non-Traded REIT), 생명보험에 투자하면 고정적인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상품, 재정설계사가 흔히 투자하는 수수료가 있는 뮤추얼 펀드 등에 투자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투자 상품 대부분 높은 수수료와 매년 부과되는 경비가 비싸다는 것입니다.

높은 수수료와 경비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상품 대부분은 수익성도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수익성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간단히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 8년간 주식시장(S&P 500)의 매년 평균 수익률이 15% 이상입니다. 총합계 수익은 268%를 기록하고 있으며 \$100,000 투자는 \$370,000으로 증가한 놀라운 수익입니다. 여러분이 투자한 여러 투자상품이 이러한 수익을 받았는지 비교해 보면 얼마나 잘못된 투자를 하고 있는지 쉽게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일부 투자자는 주식시장에서 위와 같이 높

은 수익을 받기 위해서는 투자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투자할 수 있는 S&P 500 인덱스 펀드 한 종목에 투자하면 받을 수 있는 수익률이기 때문입니다. S&P 500 인덱스 펀드는 미국에서 가장 큰 500대 회사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투자 위험성도 개별적인 회사에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적습니다. 어떤 투자자가 100개 회사에 투자한다고 합시다. 100개 회사는 500개 회사와 비교해서 투자 위험성이 더 많은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100개 좋은 회사만 선별해서 투자한다는 것도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워런 버핏은 "잠을 자고 있을 때도 돈을 벌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한다. (If you don't find a way to make money while you sleep, you will work until you die.)" 고 충고합니다. 그래서 투자는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투자를 하는데 제대로 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Song Law Firm의 법률칼럼 법정에서 강하고, 고객에게 편안한 "Song Law Firm"



Song Law Firm (www.songlawfirm.com)은 뉴저지에 본사, 뉴욕에 사무소를 두고 현재 한국지사설립을 준비 중에 있는 종합 로펌입니다. 각 분야에서 인정받은 유대인, 한인변호사들이 이민법, 지적재산법, 사고상해, 기업법, 가정법, 민형사 소송 등의 분야에서 최고의 법률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미국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미래를 개척하시는 여러 분들과 함께 새로운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소속변호사 : 송동호 대표 변호사, NJ 법무부 Deputy Attorney General출신의 Howard Z. Myerowitz 외 10여명
 www.songlawfirm.com, 보스턴 사무실 전화: 617-489-1327

송동호 로펌 법률 칼럼 - [이민법]

취업 영주권 인터뷰 준비하기 - 2회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10월 1일부터 모든 취업 영주권자들에게 대해 인터뷰를 의무화하겠다는 내용이 발표된 이후 취업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들과 신청 예정인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이 인터뷰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인터뷰가 진행될지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송동호 종합로펌에서는 지난 9월 28일에 있었던 취업 영주권 인터뷰에 대한 이민국 담당자와 이민 변호사들 사이의 토론 내용을 중심으로 지난 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그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이민국의 공식 발표는 아니지만 참석자들 사이의 자유로운 토론 내용으로 취업 영주권 인터뷰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고객님들이 문의하시는 내용 중에 인터뷰에 취업 영주권 대상자인 자신만 참석하는지 아니면 서류 상 함께 영주권을 받을 가족들도 인터뷰에 참석하게 될지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취업 영주권의 대상자 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이 인터뷰 대상이 되며 이민국은 가능한 접수 시점이 같다면 같이 인터뷰를 볼 수 있도록 일정을 잡을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인터뷰에서 거절이 된다면 그다음에는 어

떤 절차가 있는지에 대한 문의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이민 케이스처럼 이민국의 재심사를 요청 (motion to reconsider)하거나 이민국 내 상소 (motion to appeal)가 가능할지 여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민국은 이번 인터뷰를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비자 인터뷰와 동일한 절차로 인식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따라서, 인터뷰에서 지원자가 취업 영주권에 적합하지 않다는 어떤 이유라도 확인된다면 케이스는 거절될 것이고 거절된 이민 신청서는 이민국으로 다시 전달되어 기존의 취업 영주권 청원서 승인을 취소하게 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민국은 지난 9월 28일까지 각 지역 이민국에 있는 직원들 중 약 5-10%에 해당하는 인력에 대해 취업 영주권 인터뷰에 대한 훈련을 했으며 훈련 과정에서 취업 영주권 청원서에 명시된 직책이 아직도 유효한지를 확인하는 I-485J의 내용을 이해하고 확인하는 법, 그리고 취업 영주권 숫자가 아직 충분한지 확인하는 법, 인터뷰 시 해야 하는 질문과 대답을 이해하는 요령과 같은 실무 교육을 마쳤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가 진행되면서 계속 업데이트 된 내용을 이민관들에게 교육시킬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인터뷰의 목적은 취업 이민

청원서는 아니기 때문에 이민관이 회사의 재정 상황과 같이 취업 이민 청원서의 심사 내용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초점을 맞추지 않고 승인이 되었다면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끝난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인터뷰의 목적인 회사 자체 보다 지원자의 영주권 자격 요건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증명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청원서에 있는 취업 영주권 대상 직책이 아직도 유효한지에 대해서는 확인하는 과정을 밟을 것이라고 하여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국은 취업 영주권을 진행하면서 이민 변호사들의 협조를 구하는 내용으로 추가자료요청 (RFE)을 하지 않았는데 이민 변호사나 고객이 임의로 이민국에 서류를 보내는 것에 대해 자제할 것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영주권 진행 과정 중 신체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났음을 확인하고 미리 서류를 보내는 경우 이민국에서 진행하는 케이스의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잃어버리거나 담당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중간에 서류를 받게 되면 케이스 자체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의를 요청하였습니다.

따라서, 취업 영주권 인터뷰에 요청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여 이민국에 보내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으며 취업 영주권 인터뷰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변호사와 서류를 준비하여 이민국과의 소통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취업 영주권 인터뷰에 대해 대상자가 된 분들은 고민과 걱정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였습니다. 취업 영주권 인터뷰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변호사들과 준비하여 좋은 결과를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민법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immigration@songlawfirm.com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www.songlawfirm.com
 Facebook으로 친근해진 송로펌
 www.facebook.com/songlawfirmllc
 생활속의 법률 매거진, 송로펌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songlawfirm1
 대륙으로 진출하는 송로펌
 www.weibo.com/p/1005055593845027

송동호 종합로펌은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불체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입니다.”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미국에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나라,
우리 아이가 꿈을 꿀 수 있는 나라에서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남의 땅이라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힘들어 하는 일, 나서서 했습니다.

오늘도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일터로 향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녁 아이들을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불체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입니다.

SONGLAWFIRM

201.461.0031 | mail@songlawfirm.com

SONGLAWFIRM.COM

YouTube Song Law Firm

HQ Parker Plaza, 400 Kelby St., 7th Floor, Fort Lee, NJ 07024

NY 1745 Broadway, 17th Floor, New York City, NY 10019

CALIFORNIA | CONNECTICUT | D.C./VIRGINIA | GEORGIA | MARYLAND | MASSACHUSETTS | NEW YORK | NEW JERSEY | PENNSYLVANIA | KOREA | CHINA

SONGLAWFIRM



뉴저지 본사 소속 시니어 변호사

songlawfirm.com

고객이 신뢰하는 법률 브랜드

송동호 종합로펌

기업 고객 국제법 | 금융법 | 노동 및 고용법 | 보험회사 관련 소송 | 부동산 | 상법 및 M&A | 소송 | 이민법 | 임대임, 임차인 관계법 | 지적 재산법 | 프랜차이즈법

개인 고객 가정법 | 노동 및 고용법 | 부동산 | 사고 손해 | 상법 | 세금, 상속, 유언 | 소송 | 이민법 | 임대인, 임차인 관계법 | 지적 재산권 | 티켓, 지역 법원 관련 업무 | 파산 | 형법

HQ | Parker Plaza, 400 Kelby St., 7th Floor, Fort Lee, NJ 07024 | T 201.461.0031 | F 201.461.0032 | mail@songlawfirm.com

CALIFORNIA | CONNECTICUT | D.C./VIRGINIA | MARYLAND | MASSACHUSETTS | NEW YORK | NEW JERSEY | PENNSYLVANIA | KOREA | CHINA

사업의 시작은

Lee Associates

이경해 부동산

1.800.867.9000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비즈니스 용자:20% 현금, 영주권, 크레딧 700+
상가건물,콘도,아파트건물 투자하실 분 환영
1031 Exchange(상가건물세금혜택)서비스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E2비자 사업체 전문,비즈니스 무료상담
크고작은 세탁소들,런드로맷(Laundromat) 많은
주유소,식당,편의점,주류판매점등 다양한 사업체
항상 리스팅 80-100 보유

Cell.....508.962.2689
Tel.....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kayleebrokers@aol.com

보스톤 서쪽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240,000+부동산 매매, 소유자1명+직원4명

보스톤 남쪽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보스톤 북쪽 드롭스토어 연매상 \$90,000+ 고급동네 좋은 매매가격

보스톤 북쪽 런드로맷+드롭오프, 연매상 \$235,000 소유자 1명+직원

보스톤 북쪽 풀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270,000 소유자 은퇴(25년)

보스톤 북쪽 풀플랜트, 연매상 \$160,000 소유자 은퇴(32년)

보스톤 북쪽 드랍+우수선, 연매상 \$100,000 좋은 순수익

보스톤 남쪽 팩스보로 스타디움 근처,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400,000
하이드로카본 기계, 고용인(3명)+소유자(1명)

Woburn/Winchester 지역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330,000 소유자 은퇴(25년)

보스톤 서쪽 한국식당 연매상 \$175,000 비어&와인 면허증 렌트 월 \$800

보스톤 북쪽 풀 플랜트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300,000+ 노 퍼크기계, 소유자은퇴

뉴햄프셔 남쪽 런드로맷(소유자 부재 중 경영), 아파트(1 유닛), 사무실,
스토리지(100 유닛, 온도조절), 땅:3.5에이커, 모든 사업체+부동산 매매가격 \$2.2M

보스톤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220,000 노 퍼크기계, 소유자 은퇴

보스톤 북쪽 세탁소+셔츠유닛+드롭오프 스토어 연매상 \$500,000+
하이드로 카본 세탁기계,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된 비즈니스

보스톤 북쪽 런드로맷 연매상 \$200,000+ 소유자 은퇴 아파트 지역

보스톤 북쪽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220,000 하이드로 카본 기계, 소유자 은퇴
주유소+컨비니언스 여러장소 리스팅 있음

보스톤 남쪽 동양식당 풀리커 면허증, 대학가 연매상 \$300,000 고급동네

로드아일랜드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200,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보스톤 남쪽 컨비니언스 + 로터리, 연매상 \$900,000 + 로터리 커미션(\$70,000)

보스톤 서쪽 런드로맷, 연매상 \$240,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새 기계

뉴햄프셔 동양식당 + 풀리커, 연매상 \$300,000+ 소유자 은퇴

보스톤 남쪽 Meat+컨비니언스+로터리, 연매상 \$910,000+, 매매가격 \$139,000

보스톤 북쪽 런드로맷+부동산+임대수입 유닛, 매매가격 \$529,000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소유자 은퇴



Core Services

1. Saturday Lock-In

SAT1 / SSAT class
Essay Writing
Practice tests
Teachers' evaluation



2. Admission Process

Secondary School / College
School lists
Application form
Essay instruction / Revision
School tour and Interview

3. Guardianship Service

Academic courses
Extra-curricular Activities
School visit and meeting
Test Plans / Registration
Summer activities / Enrollment

2017 Thanksgiving Specials

- SAT 1/SSAT Tests Prep 그룹 수업
- SAT 2 Subject Tests Prep 개인 수업
- Contest Prep 개인 수업
- 학교 교과목 수업 보강

Grade

SSAT: 8, 9학년
SAT: 10, 11학년
기타 수업: All graders available

Date & Sessions

11월 18일(토) - 11월 26일(일)
(23일 Thanksgiving 당일은 휴강)
Session 중간 등록 가능

Tuition and Fees

수업 종류와 시간에 따라 차등
담당자 문의

Daily Schedule

09:30am-11:30am	SAT1 / SSAT수업(Reading Comprehension) 철저한 밀착형 학습 관리를 바탕으로 정확한 오답 노트의 작성과 필수 단어, 문법들을 점검합니다.
12:00pm-01:00pm	점심 식사 영양가 있는 식단의 구성으로 공부에 집중 할 수 있는 체력을 보충합니다.(별도 비용 발생)
01:00pm-03:00pm	SAT1 / SSAT수업(Writing / Verbal) 철저한 밀착형 학습 관리를 바탕으로 정확한 오답 노트의 작성과 필수 단어, 문법들을 점검합니다.
03:30pm-05:30pm	Practice Test(Reading, Writing, Verbal) 선 문제들을 풀어 보면서 자신의 준비 상태를 점검하고 다음 수업을 준비합니다.

저희 보스톤 교육원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소수 정예의 밀착 관리 학습 프로그램을 준비 하였습니다.
준비된 교재와 강사진을 통해서 본인의 SAT1 / SSAT 및 각 종 Subject Tests에 대한 점검과 계획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339.234.5255~7

Boston Education World, Inc.
보스톤 교육원

179 Great Rd. #220, Acton, MA 01720
Tel.339.234.5255~7 / Fax.339.234.5258

www.bostonedu.org 문의: info@bostonedu.org
수업문의: academicservices@bostonedu.org